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Realize Their Dream in Scotland

스코틀랜드, 그 꿈의 성지를 밟다
스코티시 오픈 투어

Ballantine's Stay True Bar in Busan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또 다른 여행,
한여름 바닷가에서 발렌타인을 만나다

Ballantine's Stay True Party

여름밤을 수놓은 4가지 테마와 장르 그리고
4색 보이스,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파티

St. Andrews Golf Club in Scotland

세계 최초의 골프 코스 –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클럽**

'발렌타인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를 통해 선정된 스코티시 오픈 투어 참가자들이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클럽에서 라운딩을 펼쳤다.

“30년의 세월은 내게
연륜과 지혜를 가져다줬지만
내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다”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Enjoy Ballantine’s responsibly

발렌타인의 STAY TRUE 캠페인,
그 속에 담긴 네 가지 정신

창업자 조지 발렌타인이 그러했고,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발렌타인 위스키가 그러하듯
발렌타인의 철학이 반영된 〈STAY TRUE〉 캠페인에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새길 특별한 정신이 담겨 있다.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INNOVATION
혁신

다양한 연산을 가진 발렌타인 위스키 포트폴리오. 그 하나하나는 혁신의 기록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향이 강한 위스키를 부드럽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조지 발렌타인의 앞선 생각은 곧 그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고연산 위스키 탄생의 시초가 됐다. 발렌타인의 대표작 '발렌타인 17'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 몰트 중 하나의 비율을 높여 탄생시킨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은 특히 발렌타인 역사상으로도 전에 없는 도전이자 혁신의 결정체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FLAIR
스타일

발렌타인 위스키는 그 맛과 향의 완벽한 균형감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을 사로잡고 있다. 거기에 생각지 못한 발렌타인의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 다양한 종류의 재료나 컬러, 컨셉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그 완전무결함은 잃지 않은 채 새로운 스타일을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거듭하며 오감이 즐거운 위스키 스타일의 변주를 이어 가는 것. 그 뜻밖의 변신은 위스키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던 이조차도 끌어당기는 컬러풀한 매력을 발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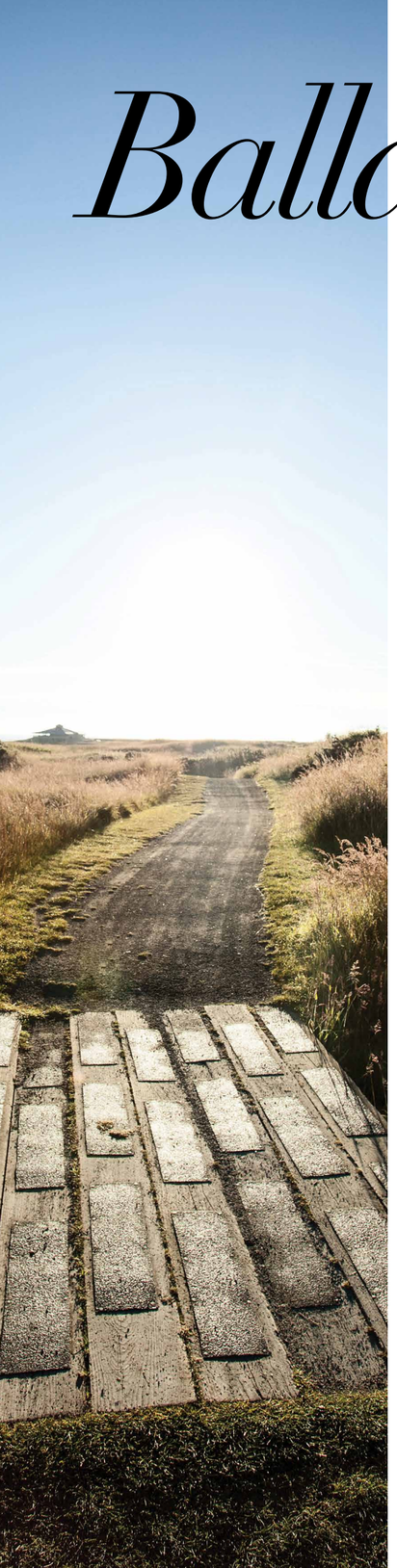
PASSION
열정

발렌타인의 현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Sandy Hyslop)은 마스터 블렌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스카치 위스키에 대한 열정, 경험과 직관을 꼽는다. 즉 최상의 블렌드를 탄생시키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스터 블렌더들의 완벽함에 대한 열망은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아트 오브 블렌딩'의 원천이다. 2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 온 열정과 장인정신이 아니었다면 한 모금만 음미해도 스코틀랜드 자연 전체를 느낄 수 있다는 지금의 발렌타인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AUTHENTICITY
진정성

19세기, 세상에 빛을 본 이후 지금까지 쌓아 온 발렌타인의 위대한 유산. 그것은 누구도 쉽게 흉내 내거나 모방할 수 없는 불변의 헤리티지다. 이와 같은 진정성에서 비롯되는 확신을 변함없이 이어 가는 발렌타인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랜 감명을 남긴다. 그만의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진정성은 1938년 스코틀랜드 문장원에서 수여 받은 고유의 문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품격 높은 신뢰를 상징하는 이 영광의 문장은 현재까지도 발렌타인 위스키의 모든 라벨에 표시되어 그 진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발렌타인이 〈STAY TRUE〉 캠페인을 통해 강조하는 이 4가지 정신은 광고에도 각각 반영됐으며, 특히 올여름 부산 해운대를 뜨겁게 달군
'발렌타인 Stay True Bar' 공간과 여름밤을 빛낸 'Stay True Party' 속에 4가지 컨셉으로 표현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Ballantine's Magazine

9th. vol.

Heritage

07. An Eternal Truth about the Heritage Brands
오랜 헤리티지 속에 빛나는 미학, 발렌타인 & 라이카

Lifestyle

15. Ballantine's Road to Scottish Open Tournament
스코틀랜드를 향한 아마추어 골퍼들의 힘찬 도전
발렌타인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20. Realize Their Dream in Scotland
스코틀랜드, 그 꿈의 성지를 밟다
스코티시 오픈 투어

46. Golf Tournament with Ballantine's
발렌타인과 한국 골프의 기분 좋은 인연은 계속된다

48. Ballantine's Special Interview with Star Players
필드를 향해 변치 않는 열정을 쏟아내는 진정한 리더,
'STAY TRUE'를 말하다

52. Ballantine's Golf Club
세계적인 골프 선수 이안 폴터가 함께하는
발렌타인 골프클럽 글로벌 런칭

54. Column for Golfers
드라이버의 선택 요령 /
발렌타인과 골프는 하나다

Innovation

61. Ballantine's Stay True Bar @TBR in Busan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또 다른 여행,
한여름 바닷가에서 발렌타인을 만나다

CONTENTS

69. Ballantine's Stay True Party
여름밤을 수놓은 4가지 테마와 장르 그리고 4색 보이스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파티

Art of Blending

81. Ballantine's Signature Collaboration
여름 바다를 물들인 감각적인 마리아쥬
발렌타인 시그니처 콜라보레이션

82. Ballantine's Whisky Cocktails
입안에 번지는 발렌타인의 색다른 변주,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

84. Ballantine's Signature Menu
지중해의 활력이 차오르는 미식의 향연,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

90. The Most Unforgettable Memory @Ballantine's Stay True Bar
발렌타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값진 경험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 & 위스키 칵테일 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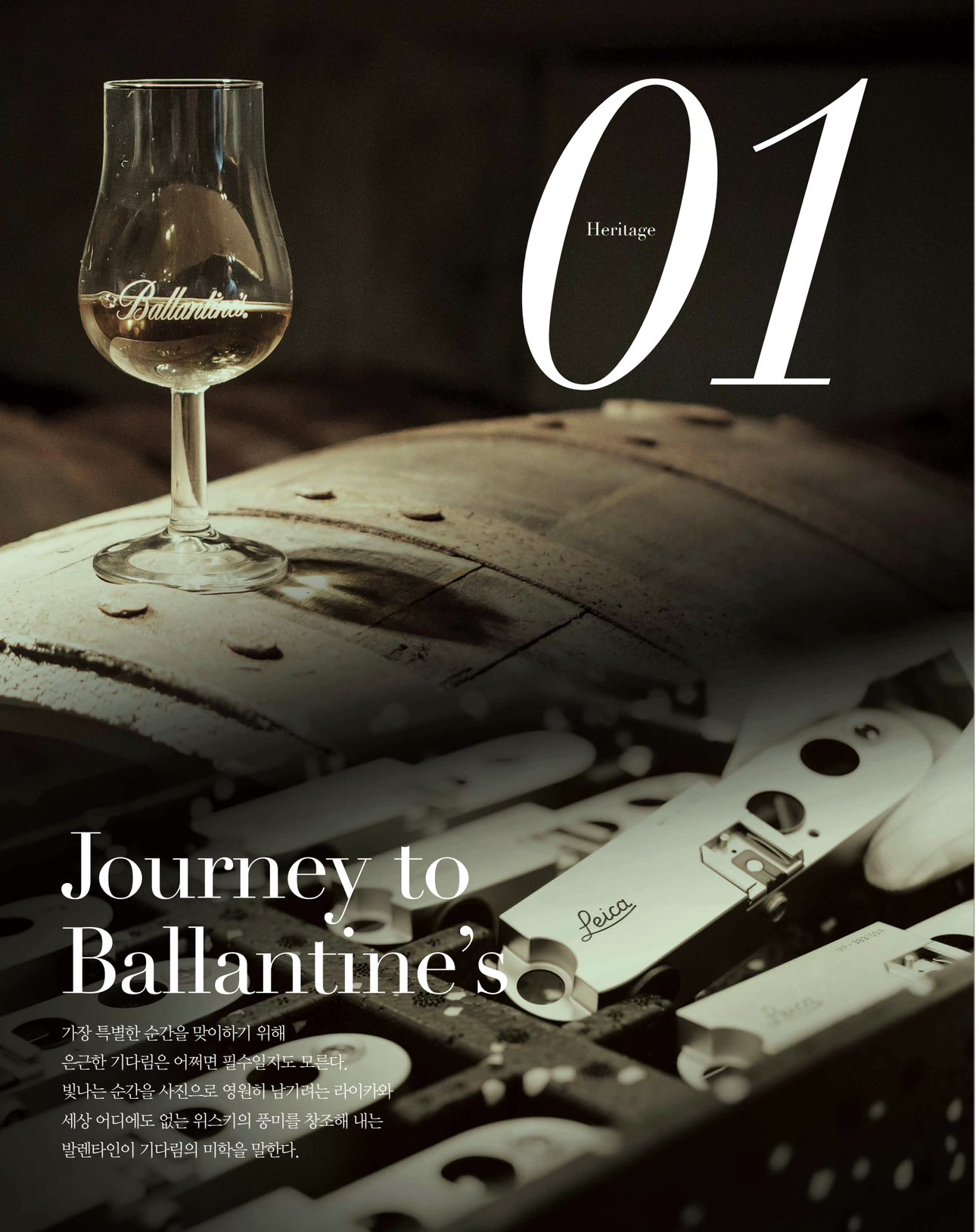
Ballantine's & Women

95. Delicate Scent of Women & Ballantine's
발렌타인, 여심을 녹여 감흥을 일으키다

Ballantine's Pick

99. Global Trend in Art & Culture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

102. EPGA / PGA Tour Schedule
미리 체크해야 할 EPGA / PGA 투어 일정



01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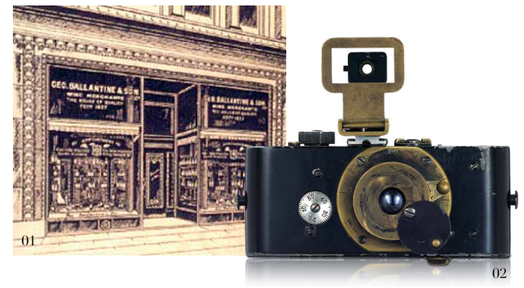
Journey to Ballantine's

가장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은근한 기다림은 어쩌면 필수일지도 모른다.
빛나는 순간을 사진으로 영원히 남기려는 라이카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위스키의 풍미를 창조해 내는
발렌타인이 기다림의 미학을 말한다.

An Eternal Truth about the Heritage Brands

오랜 헤리티지 속에 빛나는 미학
발렌타인 & 라이카

카메라 셔터는 찰나의 순간을 영원으로 남기고, 긴 세월을 거쳐 완성되는 위스키 블렌딩은 순간을 장식하며 오랜 인상을 남긴다. 세기를 넘어 브랜드 고유의 유산을 쌓아 온 라이카 카메라 AG와 발렌타인이 세월의 흐름에도 불변하는 가치의 위대함을 증명한다.



01

02

HERITAGE _시작은 불변한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Edinburgh) 지역에 작은 식료품점을 오픈함과 동시에 발렌타인 역사의 첫 장을 연 것은 1827년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조지 발렌타인(George Ballantine)이었다.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집념과 남다른 열정, 타고난 사업가적 통찰력은 그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단 5명에 불과한 마스터 블렌더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오늘날 독보적인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로 발렌타인이 자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지 발렌타인은 고객을 따라 가게 위치를 여러 번 옮기는 등 항상 트렌드의 중심에 서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품격 높은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상류층 고객들과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2,000 갤런에 달하는 숙성된 위스키와 꼼꼼한 품질 관리, 타협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뛰어난 품질로 신뢰와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는 사업 확장과 성장을 거듭했다. 또한 독자 브랜드 개발을 위한 수많은 실험 끝에 마침내 1853년, 조지 발렌타인은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이상적으로 혼합시킨 고연산 블렌디드 위스키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한다.

라이카(Leica Camera AG)의 전설적인 명성은 1914년 독일의 기술자이자 포토그래퍼였던 오스카 바르낙(Osca Barnack)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35mm 소형 카메라인 라이카의 원형을 발명하여 오늘날의 라이카가 존재하게 한 일등공신으로, 라이카 카메라의 진정한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오스카 바르낙의 꿈은 특별한 카메라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카메라는 지나치게 무겁고 크고 불편한 기기였다. 외부에서 사진이라도 찍을라 치면 커다란 카메라와 암막, 삼발이를 다 들고 다녀야 했으며, 필름도 매번 바꿔 끼워야 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상상했고, 노력 끝에 결국에는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35mm 필름 포맷(24x36mm)의 스틸 카메라 '우르-라이카(Ur-Leica)'를 개발해 냈다. '우르(Ur)'는 최초, 기원 등을 의미한다. 이 최초의 카메라는 오스카 바르낙의 사진 철학인 '작은 네거티브, 큰 사진'을 담고 있었다. 이 단순하고 논리적인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몇 년 후 이 위대한 발명품은 '라이츠 카메라(Leitz Camera)'에서 따온 라이카(Leica)라는 이름으로 시리즈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

03

04

>>
01. 에든버러에 위치한 조지 발렌타인 최초의 상점
02. 라이카 최초의 카메라, 우르-라이카
03. 발렌타인의 창시자, 조지 발렌타인
04. 라이카 카메라의 창시자, 오스카 바르낙

01

SPIRIT _정신은 이어진다

발렌타인은 브랜드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ial Spirit)을 꼽는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 가는 선견력,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사고, 완벽을 실현하는 장인정신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을 이루는 요소이자 진정한 명품 브랜드가 갖춰야 할 조건이라 발렌타인은 단언한다.

그런 측면에서 발렌타인의 창업자 조지 발렌타인은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 그 자체라 할 수 있었다. 그는 고연산 위스키의 시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상품화시킨 선지자였다. 19세기 후반 대다수 사람들은 12년산 위스키를 즐겼는데, 당시에는 위스키를 너무 오래 숙성시키면 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발렌타인 고유의 향을 유지하는 비밀을 오크통에서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30년산 위스키를 생산해 냈다. 그는 남과는 다른 차별화된 사고를 지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구자이기도 했다. 새로 만든 위스키 라벨에 자신만의 인장과 서명을 사용하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적용했고 이를 잡지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발렌타인의 초대 마스터 블렌더였던 그는 또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되 품질에 있어서는 타협을 모르던 장인이었다. 발렌타인의 마스터 블렌더들은 위스키를 제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헌신과 끈기로 지켜보며 발렌타인의 전통과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숭고한 수호자 역할을 한다. 그들은 10년 전에 블렌딩된 발렌타인과 오늘 블렌딩한 발렌타인이 동일한 맛과 향을 낼 수 있도록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책임진다. 또한 약 1,000가지의 향을 구별해 내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을 맡는 것만으로 각각의 원액을 구분해 낸다.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역할은 200년 동안 단 5명에게만 주어졌다.

최고의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발렌타인만의 완벽한 균형감을 마침내 완성시키고 이를 한결같이 유지하겠다는 사명을 다한 조지 발렌타인의 정신은 그의 아들과 마스터 블렌더들을 통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블렌딩이 완벽하다면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다." 발렌타인의 설립자 조지 발렌타인이 그의 아들들에게 항상 당부하였듯 발렌타인은 지금까지도 이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

02

>>
01. 발렌타인의 5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
02. 발렌타인 30

01

02

라이카 역시 소형 카메라 시대를 연 선구자적 브랜드로서, 오랜 역사와 정확한 공정 그리고 유니크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시도한 수많은 혁신과 도전으로 그 세계적인 명성을 끊임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것을 원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오스카 바르낙의 손에서 탄생한 이 작은 카메라는 사진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라이카사는 유행과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혁신적인 기술과 독창적인 사고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진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35mm 필름의 휴대성을 앞세운 세기의 명작을 거듭 배출하며 포토그래퍼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라이카 제품들의 설계와 공정에 있어 그 뛰어난 성능과 창의적인 정신, 최고의 독일 엔지니어링 기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라이카사가 품질에 기울인 노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다. 우선 카메라를 생산하는 모든 단계가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라이카 카메라는 하루 50대 생산을 원칙으로 하며 60가지가 넘는 검수 과정을 거친다. 렌즈 역시 모두 극도로 정밀한 수공업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작품이다. 실용적이고 컴팩트하며, 인체공학적인 라이카 렌즈는 우수한 아날로그 기술과 디지털 포토그래피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다. 라이카 렌즈로 촬영한 사진은 우수한 콘트라스트, 해상도, 아름다운 연출력 외에 '자연스러움'을 잘 포착해 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라이카로 의미 있는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기록하는 것이 한층 쉬워진 것이다.

진화는 거듭됐다. 카메라와 렌즈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환등기, 쌍안경을 비롯한 광학 제품들과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망원경과 같은 스포츠 옵틱스 라인 등 오늘날의 디지털 사진 장비들이 완벽한 고성능 시스템으로 탄생했다. 이 모든 결과물들이 오랜 경험, 타협하지 않는 높은 퀄리티 스탠더드, 전 세계 전문가와 유저와의 소통을 통한 혁신적인 발전과 진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이카를 두고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100년의 라이카의 정신을 가지는 것과도 같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다.

>>
01. 03. 04. 05. 라이카 공장의 바디 생산 모습
02. 고성능 시스템의 광학기기 또한 선보이고 있는 라이카의 쌍안경, Geovid 10×42

03

04

05

HISTORY _순간은 영원하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발렌타인 브랜드의 명성과 완벽한 위스키를 향한 창업자 조지 발렌타인의 끝없는 열정은 후손들에게 이어졌다. 영광의 순간 또한 계속됐다. 빅토리아 여왕은 조지 발렌타인의 사후인 1895년,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여 발렌타인가(家)에 왕족 칭호를 하사하고 최고 명품에만 주어지는 '로얄 워런트(Royal Warrant)'를 수여했다.

1910년, 조지 발렌타인과 그의 열정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은 독보적인 매력의 '발렌타인 파이니스트'를 세상에 선보였다. 이어 1930년대에는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작이자 가장 높이 평가되는 위스키 중 하나인 '발렌타인 17'과 '발렌타인 30'이 새롭게 발렌타인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두 특별한 블렌드는 부드러우면서도 균형 잡힌 블렌딩의 깊은 맛과 향이 오랜 여운을 남기며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수퍼 프리미엄급 스카치 위스키로 단숨에 자리잡았다. 저명한 위스키 평론가이자 위스키 바이블의 저자 '짐 머레이(Jim Murray)'는 2011년, 발렌타인 17을 올해의 위스키로 선정하며 그 변함없는 완전무결함을 입증하기도 했다. 60년대를 맞아 발렌타인은 클레멘타인과 허니의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젊은 위스키, '발렌타인 12'를 출시했다. 시간을 뛰어넘어 1990년대에는 마침내 세련되고 우아한 풍미의 '발렌타인 21'이 세상에 소개되면서 위대한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켰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발렌타인의 열망과 시그니처 스타일을 이어갈 새 주자가 선택됐다. 샌디 히슬롭(Sandy Hyslop)이 뛰어난 기술과 완벽한 블렌딩을 위한 헌신을 바탕으로 발렌타인의 역사를 계승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5대 마스터 블렌더로 임명된 것이다. 2012년 선보인 '발렌타인 40'은 선대의 열망을 그대로 이어받은 샌디 히슬롭의 재능과 기술, 열정, 기다림의 미학이 담긴 일대의 예술 작품으로 위스키 역사의 새로운 서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영광의 발렌타인, **불변의 발렌타인 위스키**

1910 부드럽고 달콤한 모던 스타일 위스키,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출시

1938 이상적인 스카치 위스키 가치의 실현, '발렌타인 17' 출시
소수에게만 허락된 최상의 프리미엄, '발렌타인 30' 출시

1960 허니의 달콤함과 스파이시함의 조화, '발렌타인 12' 출시

1993 예술적 스타일을 지닌 아로마틱한 풍미, '발렌타인 21' 출시

2001 한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위스키, '발렌타인 마스터즈' 출시

2010 희소성 높은 진귀한 몰트의 하모니, '발렌타인 리미티드' 출시
발렌타인 17의 심장 역할,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출시

2011 발렌타인 17의 부드러움을 강조한 '발렌타인 17 스카파' 출시

2012 200여 년의 열망이 낳은 진귀한 결정체, '발렌타인 40' 출시
발렌타인 17의 따뜻함의 근간,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출시

2013 발렌타인 17의 긴 여운을 강조한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출시

01

>>
01. 라이카 브랜드 초창기 광고
02. 라이카 I
03. 라이카 M3
04. 라이카 T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라이카의 제품들은 언제나 유니크하고 남다르며 완벽하다.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유저의 '특별한 시각적 경험(unique visual experience)'을 고려하기 때문. 예나 지금이나 라이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유저의 니즈(Needs)다. 라이카의 혁신은 언제나 유저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회의와 검토의 결과였으며, 기발한 엔지니어링 기술과 장인정신이 이에 더해져 완벽한 작품을 탄생시켜 왔다.

최초의 라이카의 원형, '우르-라이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진계의 혁명이었다. 라이카는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10년이 지난 1925년에 이르러서야 우르-라이카를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시판용 소형 카메라, '라이카 I'을 출시한다. 1932년 시판된 '라이카 II'는 RF 카메라(Range Finder Camera)로, 촬영하는 렌즈와 분리된 별도의 거리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초점을 잡는 카메라였다. 이어 1954년에는 세계 최대의 사진 분야 전시회 '포토키나'에서 진화된 RF 카메라, '라이카 M3'를 선보였다. 라이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카메라로 알려진 M3는 교환하는 렌즈에 따라 프레임이 변하는 밝은 뷰파인더를 내장하고 있었다. 다른 렌즈를 장착할 때마다 별도의 뷰파인더를 장착해야 하는 불편이 제거되면서 M3는 전문 포토그래퍼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생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M3를 사용하는 포토그래퍼들이 많은 이유다. 라이카는 일본과의 경쟁 등 위기도 여러 번 겪었지만 '클래식한 디자인'과 '단순한 작동에서 오는 신뢰성'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재도약하며 지속적으로 M 시리즈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10년을 넘어서며 라이카는 컴팩트 카메라 또한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특히 라이카 카메라 100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라이카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 '라이카 T 시스템'은 통 알루미늄을 장시간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든 만큼 매우 견고한 바디가 특징이다. 아우디 디자인 팀과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매끈하면서도 부드러운 표면과 깔끔한 선으로 이뤄진 외형이 단순함과 간결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100년의 라이카, **전설의 라이카 카메라**

1914 소형 카메라 시대를 연 최초의 카메라, 'Ur-Leica' 출시

1925 우르-라이카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35mm 카메라, 'Leica I' 출시

1932 거리계 연동 파인더를 내장한 RF 카메라, 'Leica II' 출시

1954 라이카 역사 속 전설의 상징, 'Leica M3' 출시

1968 세계 최초 SLR 방식의 카메라, 'Leicaflex SL' 출시

1984 라이카 M 시리즈와 레인지 파인더의 만남, 'Leica M6' 출시

1996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스템이 접목된 'Leica R8' 출시

2006 라이카 M 시리즈 최초의 디지털 모델, 'Leica M8' 출시

2008 중형 포맷의 프로페셔널 카메라, 'Leica S2' 출시

2009 독일 기술로 탄생한 디지털 컴팩트 카메라, 'Leica X1' 출시

2014 100년의 철학을 담은 라이카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 'Leica T' 출시
'Leica M Edition 100' 등 라이카 10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ART _미학은 불멸이다

발렌타인에 있어 '블렌딩'이란 단순히 위스키를 정확한 비율에 의해 섞는 것만은 아니다. 고유한 풍미와 개성이 각기 다른 증류소에서 만들어진 최상급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가 마스터 블렌더의 오감을 통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발렌타인의 블렌딩이다. 이처럼 기술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블렌딩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발렌타인 위스키가 '아트 오브 블렌딩(Art of Blending)'으로 불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작, 발렌타인 17은 스코틀랜드 4개 지역에서 40여 가지의 몰트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블렌딩과 긴 숙성의 세월을 거쳤을 때 마침내 완성되는 창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완벽한 비율의 블렌딩에 조금의 오차만 생겨도 전혀 다른 위스키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발렌타인은 오히려 이를 이용해 독특한 리미티드 에디션,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을 탄생시켰다. 발렌타인 17의 완벽한 부드러움에 기여하는 4곳의 증류소에서 생산하는 핵심 몰트 위스키 중 하나만 좀 더 강조하여 4가지의 스페셜 에디션을 연이어 선보인 것. 하지만 이 역시 천재적인 명장의 블렌딩과 스코틀랜드 천혜의 자연이 선사하는 최상의 원료, 선별된 오크통 안에서의 긴 숙성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 특별한 에디션들은 발렌타인 특유의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을 지니면서도 각 지역과 몰트의 특색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블렌딩의 미학으로 발렌타인 애호가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렇듯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시그니처 스타일과 위스키의 맛과 향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퍼펙트 밸런스'. 그리고 누구나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아트 오브 블렌딩'은 오직 발렌타인만이 선보일 수 있는 것으로 위스키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 위대한 위스키가 당신의 가장 특별한 순간, 영원히 기억에 남는 풍미를 선사할 것이다.

01

02

03 04 05 06

>>

01. 02.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렌버기 증류소의 과거(좌)와 현재(상단).
03. 04. 05. 06.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01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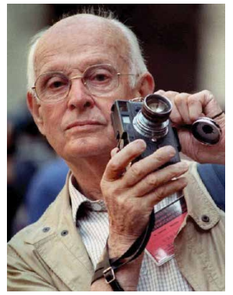
위스키가 기다림의 미학이자 블렌딩의 미학이라면, 사진 역시 찰나의 순간을 위한 기다림의 미학이며 빛이 그려내는 미학이다. 지난 100년간 라이카는 '포토 저널리즘'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진 미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라이카가 만든 것은 단지 카메라가 아닌 역사상 기억에 남는 순간순간이었다. 스페인 내전에서 촬영된 로버트 카파의 '총 맞는 병사(Falling Soldier)', 알베르토 코르다가 촬영한 쿠바 혁명가 '체 게바라'의 초상화, 닉 우트가 베트남 전쟁에서 촬영하여 퓰리처상을 받은 어린 소녀의 사진,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가 1945년 전승기념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촬영한 'VJ-DAY Kiss' 등 수많은 전설적 사진들은 라이카에게 세계적 명성을 안겨줬다.

대표적인 사진 작가로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을 들 수 있다. 그는 순간의 미학을 그만의 작품 철학으로 승화시켜 사진 미학의 정점을 찍었다. 그 외에도 로버트 카파(Robert Capa), 엘리엇 얼윗(Elliot Erwitt) 등의 매그넘(MAGNUM) 소속 사진가와 유명 다큐멘터리 사진가 세바스티앙 살가도(Sebastian Salgado) 등 라이카 카메라를 사용하는 많은 명사들과 함께 라이카의 명성은 전설이 되었다. 이들을 비롯한 전문 사진 작가들, 사진 애호가들에게 라이카는 인간의 시각과 인사이트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일반적인 자연의 한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라이카가 보다 나은 사진 작품을 위한 철저한 헌신으로 전 세계 사진인들의 높은 기대에 꾸준히 부응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라이카를 품에 안는 것만으로도 사진 애호가들에게는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말이 있다. 라이카가 지금처럼 유저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과 지속적인 가치를 전하고 그들만의 크리에이티브한 만족을 채워 주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한, 사진 미학을 창조하는 대표주자 라이카를 향한 견고한 신뢰와 깊은 애정은 계속될 것이다.

04



>>

01. 02. 라이카에 찍힌 역사적 순간들
03. 라이카 M 에디션 100
04. 라이카를 애용했던 사진 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02

Lifestyle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유산 '골프'와 '발렌타인',
이 둘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건 어쩌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큰 축복일지도 모른다.
지금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 완벽한 앙상블이
고향 땅 필드 위에서 힘껏 태동하기 시작했다.

Ballantine's Road to Scottish Open Tournament

스코틀랜드를 향한 아마추어 골퍼들의 힘찬 도전
발렌타인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대회 전부터 아마추어 골퍼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발렌타인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가 지난 6월 23일 렉스필드 C.C.에서 개최됐다. 이 특별한 토너먼트에는 한 달간 인기리에 진행된 소비자 프로모션을 통해 선정된 100여 명의 고객들이 자리를 빛냈으며, 이들은 스코틀랜드를 향한 '꿈의 티켓'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대회 챔피언과 메달리스트, 단 2명에게만 '스코티시 오픈 투어' 참가 기회가 주어진 만큼 필드에서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숨은 고수들의
예측할 수 없는 샷 경쟁

발렌타인이 주최하는 순수 아마추어 골프 대회 '발렌타인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가 성대한 막을 올리며 골프 축제의 장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경기가 치러질 렉스필드 C.C.를 찾았다. 곳곳에선 저마다 발렌타인 테이스팅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연습 퍼팅을 시도하며 샷 감각을 끌어올리는 등 긴장을 푸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영예의 수상자 2인에게 골프와 위스키의 성지 스코틀랜드를 탐방할 수 있는 '스코티시 오픈 투어'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불꽃 튀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었다.

한편 참가 선수들이 개별 준비를 마친 가운데, '발렌타인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렸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영업총괄 김부록 전무는 개회사에서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발렌타인과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에서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란다"고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뒤를 이어 대회를 참관할 경기위원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진행 방식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고, 참가 선수들은 경기 룰을 귀담아 들었다. 본 대회에는 R&A와 USGA에서 승인된 골프 규칙과 경기위원회가 제정한 로컬룰이 적용되었으며, 신페리오 방식으로 산출된 핸디캡을 통해 챔피언은 물론 대회상 각 부문의 수상자를 가렸다.

개막식이 종료된 후 샷건 방식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40개조 160여 명의 선수들이 렉스필드 C.C. 레이크 코스와 마운틴 코스에서 총 18홀의 경기를 치렀다. 숨은 실력자들의 팽팽한 샷 경쟁 속에서 대회 당일 세차게 퍼붓는 소나기와 변덕스러운 날씨로 승부는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발렌타인의 STAY TRUE(진정성)를 공유하는 값진 시간

이번 '발렌타인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를 통해 발렌타인은 매 순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면서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발렌타인 테이스팅 클래스'를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편성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발렌타인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퍼팅 이벤트 존에서는 퍼팅 성공 시 발렌타인 위스키를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버디 성공 선수들에게 발렌타인 17을 증정하는 '발렌타인 시그니처 홀'을 비롯하여 코스 중간중간마다 배치된 미션홀들은 경기를 즐기는 재미 요소 중의 하나였다. 롱기스트홀과 니어리스트홀에서는 기록에 따라 대회상이 수여된다는 점에서 묘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발렌타인 부스에서는 시원하고 상쾌한 칵테일 '발렌타인 17 후레쉬', '발렌타인 17 아이스'를 제공하면서, 지친 선수들에게 힘을 더했다. 내리쬐는 뙤약볕과 무더위 속에서도 18홀을 모두 소화하는 선수들을 배려한 작은 이벤트들은 경기 내내 이어지면서 참가자들을 미소 짓게 했다.

한편 발렌타인은 경기가 펼쳐지는 골프 코스와 클럽하우스 등 여러 곳에서 발렌타인의 새로운 캠페인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진정성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전파했다. 이에 현장을 찾은 골퍼들은 자신만의 STAY TRUE를 '성실', '긍정', '용기', '최선' 등으로 정의하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참가자들과 서로 공유하는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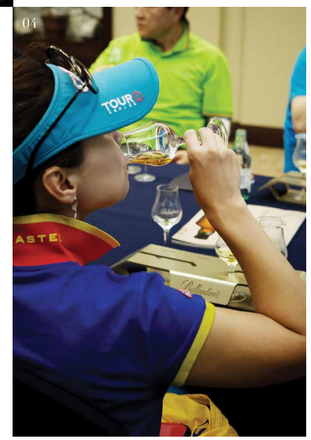
02

03

Mini Interview
발렌타인 테이스팅 클래스 @렉스필드 C.C.

"평소에도 발렌타인의 부드러운 맛과 향을 좋아해서 즐겨 마시곤 하는데, 오늘 발렌타인의 색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발렌타인 17을 직접 맛보고 느낀 그대로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했을 뿐인데, 생각지 못한 깜짝 선물까지 받게 됐네요." _ 백혜신

04



05

06

>>

01. 1번홀에서 진행된 시타 세레모니 장면
02. 03. 발렌타인 부스를 찾은 선수들에게 시원한 '발렌타인 17 아이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04. 05. 경기를 전후해 열린 발렌타인 테이스팅 클래스
06. 17번홀은 발렌타인 시그니처 홀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01

02

03

04

>>

01.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한데 모여 시상식의 밤을 함께 즐겼다
02. 김인중(좌), 오순석(우) 씨가 스코티시 오픈 투어의 최종 주인공으로 선정되면서 기뻐하고 있다
03. 페르노리카 코리아 영업총괄 김부록 전무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04. 파티 분위기를 주도했던 윈터플레이의 공연

대회를 마무리 짓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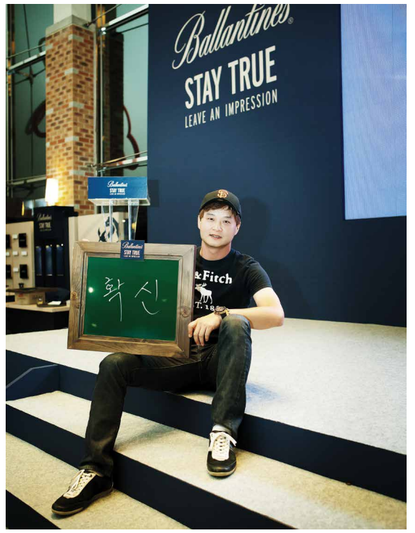
시상식 그리고 발렌타인 파티

5시간이 넘는 긴 레이스를 펼친 선수들이 모두 착석한 가운데, 대회를 마무리 짓는 시상식이 개최됐다. 그 시작으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각자의 STAY TRUE(진정성)를 소개하는 특별한 영상이 상영되면서 객석의 눈길을 끌었고, 이어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총괄 이정호 전무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 페르노리카 코리아 영업총괄 김부록 전무가 건배 제의를 했고, 다같이 'STAY TRUE'를 외치며 축배를 드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재즈밴드 윈터플레이의 감성적인 재즈 공연 또한 계속되면서 장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각 부문의 시상에 앞서 발렌타인은 럭키 드로우, 퀴즈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하여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했다. 모두가 즐거운 파티 무드에 젖어들 때쯤 SBS 박상준 아나운서의 사회로 본격적인 시상이 진행됐다. 시상은 대회상과 특별상으로 크게 나뉘어 이루어졌는데, 성적으로 좌우되는 대회상과는 달리 특별상은 상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 수상의 기쁨을 더했다. 발렌타인과 인연이 깊은 숫자 17, 21, 30과 연관을 지은 행운상과 발렌타인처럼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준 조에게 돌아가는 퍼펙트 밸런스상 등이 그것으로, 발렌타인 17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등 다양한 부상도 함께 수여됐다.

대회상은 집계된 성적을 바탕으로 수상자가 정해졌으며, 지정 홀에서 장타, 버디 등 좋은 기록을 거둔 선수들에게 각각 롱기스트상, 니어리스트상, 버디상이 추가로 주어졌다. 궂은 날씨에도 팽팽한 접전이 펼쳐진 만큼 챔피언부터 3위까지는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서서히 '스코티시 오픈 투어' 주인공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챔피언 오순석, 메달리스트 김인중 씨의 이름이 호명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며 감격에 찬 두 주인공을 축하했다.

Winner's Interview — 발렌타인 스코티시 오픈 투어, 그 영광의 주인공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챔피언(신페리오 1위)** **오순석**

'챔피언'의 타이틀을 얻었는데_
제가 챔피언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골프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는데, 좋은 성적까지 얻게 되었네요.

오늘 본인의 플레이에 만족하는지_
비가 여러 차례 내려 마음먹은 것처럼 잘 풀리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라운딩에 임하려고 노력했어요. 필드에 적응이 될 때쯤부터는 운까지 잘 따라준 것 같습니다.

평소 발렌타인을 즐기는지_
네. 시간이 날 때면 지인들과 발렌타인 위스키를 자주 즐기는 편입니다. 특히 부드러운 풍미의 발렌타인 21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스코티시 오픈 투어에 함께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는데_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실감이 나질 않네요. 골프와 위스키가 시작된 스코틀랜드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하고,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어느 날 문득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께서는
늘 성실하시지 않냐고… 아마도 제 삶 속에서 성실이
가장 큰 가치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메달리스트(스트로크플레이 1위)** **김인중**

'메달리스트'의 타이틀을 얻었는데_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궂은 날씨였지만 함께 라운딩을 했던 파트너들, 동행한 캐디와의 호흡이 잘 맞았던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닐까 해요.

오늘 본인의 플레이에 만족하는지_
매 홀마다 퍼팅이 잘 되면서 생각보다 버디를 많이 기록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 것 같습니다.

평소 발렌타인을 즐기는지_
언제 마셔도 변치 않는 맛과 완벽한 밸런스가 발렌타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발렌타인 17을 즐겨 마시는 편이고, 특별한 분들께 선물할 일이 있을 때마다 발렌타인을 꼭 챙겨 드리고 있어요.

스코티시 오픈 투어에 함께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는데_
골프와 위스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에 그리는 곳이 스코틀랜드가 아닐까요? 저 또한 이 의미 있는 스코티시 오픈 투어에 참여하고 싶어 소비자 프로모션에 직접 응모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행운이 따를 줄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꿈꿔 왔던 바람이 이뤄져 행복합니다.

스코틀랜드, 그 꿈의 성지를 밟다
스코티시 오픈 투어

REALIZE THEIR DREAM *in Scotland*

수많은 골퍼들과 위스키 애호가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곳,
스코틀랜드를 향한 그들의 염원이 저 멀리까지 전해졌기 때문일까.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꿈의 지도가 어느새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Scottish Open Tour

골프와 위스키의 메카를 경험하는 특별한 여정 스코티시 오픈 투어

발렌타인은 지난 6월 23일 아마추어 골프 대회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를 개최하면서, 영예의 수상자 2인에게 스코티시 오픈 투어의 기회를 선사했다. 세계 최초의 골프 클럽 세인트 앤드류스에서의 라운딩, 발렌타인 글렌버기 증류소 탐방, 스코티시 오픈 갤러리 참관 등 5박 7일간의 일정을 통해 두 우승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골프와 위스키의 성지 스코틀랜드에서 잊지 못할 위대한 순간을 맞이했다.

골프의 성지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클럽을 둘러보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골프를 접하고 익히는가를 확인하고, 발렌타인 위스키의 심장인 글렌버기 증류소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자연이 낳은 위대한 산물인 위스키의 탄생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시간. 스코티시 오픈 참관을 통해 스코틀랜드에서 탄생한 골프와 발렌타인의 상관관계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골프가 왜 엘리트의 스포츠인지 직접 보고 겪으면서 발렌타인이 지닌 프리미엄의 가치와 일맥상통함을 느꼈다. _ NOBLESSE 이재연 기자

환상적인 콜라보! 스코틀랜드 자연의 걸작품인 위스키와 골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다. 위스키와 골프를 좋아한다면 꼭 추천하고 싶은, 향기 가득했던 여정이었다. 왕실에서도 반했다는 발렌타인의 그윽한 향이 아직까지 코끝에 맴돌고 있다.
_ J골프 김두용 기자

직업상 업무 외적으로 일주일을 온종일 비우는 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발렌타인이 나에게 그 핑계를 만들어 주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7일간, 골퍼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 골프의 성지 세인트 앤드류스와 발렌타인의 심장인 글렌버기 증류소, 그리고 스코티시 오픈 갤러리 참관까지. 스코틀랜드 여행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내년에 이런 행운을 거머쥘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다.

"당신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들을 맛보고 오게 될 것이다"라고.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메달리스트' 김인중

St. Andrews Golf Club

600여 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골프의 발상지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 클럽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에 있는 작고 그림 같은 도시, 세인트 앤드류스에 위치한 이 골프 클럽은 골퍼들에게는 성지로 불린다. 총 6개의 코스 중 올드코스(Old Course)는 전 세계 최초로 골프 경기가 시작된 곳이자 골프의 규칙을 제정하고 골프가 본격적인 스포츠 경기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한 본거지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도 브리티시 오픈 등 세계적인 국제 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광이었다. 파란 하늘이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땅과 이어진 바다 끝에서 수평선을 만들었고, 태양은 머리 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내비쳤다. 저 멀리 고풍스런 분위기의 페어몬트 호텔이 자리해 있고, 초원 한가운데에서 바람을 벗삼으며 즐기는 라운딩은 그야말로 자연의 축복이었다. 사실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후 달라진 시차와 길어진 해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지만, 세인트 앤드류스 토란스 코스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 그대로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따뜻한 햇살과 간간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즐겁고 경쾌한 이들과의 라운딩은 왜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 빠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골프에 아직 초짜인 나조차도 귀국 후 다시 골프채를 손질하고 있을 정도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의 라운딩은 강렬한 기억이었다. _ LUXMEN 서종열 기자

골프의 본고장 세인트 앤드류스에서의 골프는 모든 골퍼들의 꿈이자 소망이다. 언덕 위에 위치한 페어몬트 호텔 토란스 코스에서의 라운딩은 세인트 앤드류스의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진귀한 경험이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16번홀의 그림 같은 풍경은 잊혀지지 않을 추억이다.
_ J골프 김두용 기자

세인트 앤드류스 토란스 코스에서의 라운딩 체험이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캐디를 부르는 것을 사치로 여긴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발렌타인 측의 배려로 캐디와 함께 라운딩을 할 수 있었다. 벤(Ben)이라는 30대 중반의 캐디는 축구는 물론 영국인 답지 않게 야구에도 심취해 있었다. 그는 한국의 류현진과 추신수 선수를 알고 있었다. 거기에다 이 친구의 골프 핸디가 무려 5란다. 우리를 초대해 주고 라운딩까지 함께한 발렌타인 헤리티지 &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디렉터 피터 프렌티스(Peter Prentice)는 너무나 자상하고 젠틀한 영국 신사였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잉글랜드에서 자라나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다는, 영국을 통째로 알고 있는 53세의 멋진 영국 신사다. 혹시나 한국인인 내가 잘 못 알아들을까 싶어, 쉬운 영어 위주로 대화를 나눠 주었다. 깊은 배려심에 절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왔다. 피터는 골프 또한 수준급 실력이었다. 역시 골프의 성지에 살며, 골프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발렌타인의 임원다웠다.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메달리스트' 김인중

마치 공원을 찾은 것처럼 가족들이 다 함께 골프를 즐기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던 세인트 앤드류스의 '올드코스'

평생 한 번 가볼 수 있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꿈의 골프 코스에서

라운딩을 할 수 있어 순간순간이 행복했다. 멋진 풍경을 가진 세인트 앤드류스의 필드는 지금까지도 눈에 아른거린다. 바람이 많이 불고 러프가 많은 코스의 특성상 라운딩하기가 다소 어렵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캐디가 동행하여 더욱 편안한 라운딩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홀은 파4홀이었는데, 내리막을 따라 바다로 향해 있는 그린이 아주 인상적인 코스였다.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챔피언' 오순석

라운딩 경험은 중요치 않았다. 초보 골퍼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다이내믹한 지형! 세인트 앤드류스는 수백 년에 걸쳐 바닷바람이 조각한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_ LUEL 강보라 기자

Kilt & Scottish Dinner

스코틀랜드만의 전통 문화 체험 킬트 & 스코티시 디너

킬트와 하기스, 백파이프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로 손꼽힌다. 허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주름 치마 형태의 킬트(Kilt)는 체크 무늬가 인상적인데, 타탄(Tartan) 체크라 불리는 이 패턴은 본래 무늬에 따라 집안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번 투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킬트를 입고, 전통 음식 하기스를 곁들인 스코티시 디너를 즐기면서 스코틀랜드의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킬트로 불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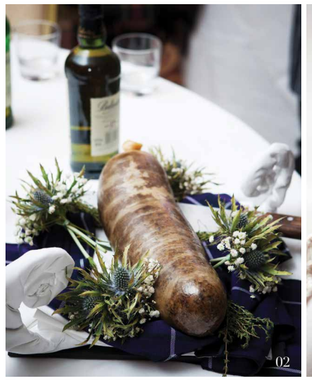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이 침대 위에 놓여 있다. 전통 스코티시 디너에 이 복장으로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꽤나 무게가 나간다. 처음 입어 보는 의상이지만 어렵지 않게 착용할 수 있었다. 전통에 맞게 치마 형태로 입으니 시원했다. 디너 현장에서 피터는 유머러스함과 엄숙함을 오가는 말솜씨로 참석자들을 스코티시 정통 디너에 빠져들게 했다. 함께 마시는 발렌타인의 풍미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입맛을 돋워준 멋진 식사 코스였다.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메달리스트' 김인중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을 입고, 전통 음식을 곁들인 디너 식사를 하면서 골프와 위스키의 성지, 스코틀랜드의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행복했다. 하기스는 이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맛볼 수 있는 영광까지 누릴 수 있다니!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챔피언' 오순석

01



02

03

>>

01. 위스키, 백파이프 그리고 전통 의상인 킬트(Kilt) 모두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로 손꼽힌다

02. 양이나 송아지 내장을 다져 오트밀과 섞은 후 위장에 넣어서 삶은 스코틀랜드 대표 음식 '하기스(Haggis)'

03.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술잔인 '퀘익(Quaich)'

Ballantine's Glenburgie Distillery

숭고한 역사와 가치를 담은 발렌타인의 심장
글렌버기 증류소

1810년에 문을 연 글렌버기 증류소는 스코틀랜드 위스키 지역의 심장부인 스페이사이드(Speyside)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렌타인의 상징적인 디스틸러리 중의 하나다. 특히 200년 동안 변치 않는 발렌타인 17의 우아하고 달콤한 맛의 초석이 되는 곳으로, 전통적인 정신이 담긴 글렌버기만의 블렌딩 스타일을 지금까지도 몰트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이 한 잔의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다. 그런데 각각의 재료들부터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제 증류소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신기했다. 큰 규모는 물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글렌버기 증류소에서 기억에 남는 추억을 남긴 것 같아 행복하다. 특히 내 나이보다도 많은 오크통에서 꺼낸 원액을 그 자리에서 시음했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챔피언' 오순석

글렌버기 증류소는 애버딘에서 북동쪽으로 두 시간 가량 올라간 알비스 모레이에 위치한다. 외부 관광객들을 위한 코스로 문을 잘 열어 두는 다른 증류소와는 달리 이곳은 특별한 기간이거나 VIP에게만 문을 여는 곳이라 주류업체의 한 초청자는 '출발 전부터 설렌다'고 했다. 위스키 증류소는 한적하고 고요했다.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긴 창고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이 웅장했다. 건물 벽이 거무뎅뎅한데 이는 알코올 균들이 들러붙은 찌꺼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가 바로 발렌타인의 심장이었다. 우리를 안내한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인 이안 로건(Ian Logan)의 말이다.

"2007년 개보수 한 뒤로 여기서 만든 발렌타인이 1초당 2병씩 팔리고 있습니다. 한 해 400만 리터인데, 병수로 치면 7500만 병이죠."

내부로 들어가니 6개의 구리로 된 큰 증류기들이 엄청난 열을 발산하고 있었다. 보리를 갈고 물과 섞어 끓여서 증류하고 그걸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렌타인 특유의 향과 풍미가 만들어진다. 발렌타인의 심장답게 증류소 내부 곳곳에는 발렌타인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제조 공정은 시스템화되어 있었다. 직원 중 한 명이 내게 단추를 누르고 밸브를 돌려 보라고 했다. 초벌 증류를 끝낸 원액을 2차 증류기로 옮기는 데 나도 한 손 거든 셈이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길게 늘어선 창고 중에 한 곳을 들어갔다. 서늘한 기온에 빼곡히 쌓인 오크통들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오크통은 미국의 버번을 만들던 것과 와인으로 쓰이는 셰리를 만들던 오크통을 쓴다고 했다. 마지막은 시음장이었다. 200주년 한정판에 새겨진 오두막 같은 옛 건물이었다. 한국에서는 단종된 발렌타인 파이니스트를 비롯해 발렌타인 12년, 17년, 21년, 30년을 시음하면서 그들이 내는 향과 맛에 취했다. 발렌타인 30년을 건네면서 이안이 말한다. "이 위스키가 만들어질 때 당신께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을 듣고 한 모금 마시니 내 지나온 인생이 참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빠르게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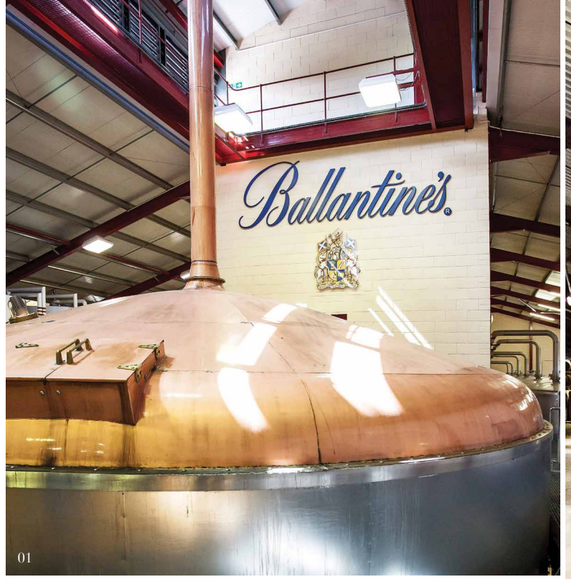
이날의 백미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였다. 이안은 우리를 지하 창고로 데려가더니 1969년 밀튼더프 몰트의 오크를 직접 뚫어서 한 모금씩 잔에 따라 주었다. 46년 된 위스키를 입에 넣으니 뭐랄까, 슬프고 짜릿하고 타는 듯하면서 달콤했다. 희로애락의 내 인생 전체가 반추(反芻)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위스키라는 단어를 달리 정신(Spirit)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른다.

_ 골프다이제스트 남화영 기자

시간에 시간을 엮어

아무 때나 또는 아무에게나 열지 않고 꽁꽁 감춰 둔다는 글렌버기 증류소는 발렌타인의 주조 철학이 담긴 비밀 창고 같았다. 최신식의 설비를 갖추되 초창기부터 고수해 온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고수하면서 공을 들이는 장인정신은 발렌타인이 최고의 프리미엄 위스키라는 찬사를 받을 만한 이유였다.

_ J골프 김두용 기자



01

비로소 세상에 동아줄을 내리는 발렌타인 위스키의 연륜은 종종 한 시대를 뛰어넘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글로만 알았다. 꿀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글렌버기 증류소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장인과 첨단의 장비들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글렌버기 증류소는 속도와는 한참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다. _ LUEL 강보라 기자

02

03

04

200년이 넘은 위스키 증류소지만, 생산 시스템의 관리는 철저하게 현대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ES(생산관리시스템)는 최첨단으로 모두 자동화되어 한눈에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모든 시스템은 터치로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증류소 밖의 창고에서는 오크통에 보관된 위스키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하다. 또 오크통은 그 제작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서 장인만이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보관이 잘 되는 것이 매우 신기했고, 오크통 자체가 숨을 쉰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내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오크통과 위스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
위스키 테이스팅의 기회도 주어졌다. 이를 통해 발렌타인이 연산별로 어떤 맛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향을 맡고 즐길 수 있는지를 배웠다. 또 단지 17년산을 4년 더 둔다고 21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스키가 전혀 다른 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에 위스키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은 하루였다. 글렌버기 증류소 방문은 나에게 위스키의 또 다른 세상을 알게 해준 고마운 여정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위스키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다.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메달리스트' 김인중

>>
01. 글렌버기 증류소 내부의 증류기
02. 04. 발렌타인의 헤리티지를 엿볼 수 있는 '조지 발렌타인 하우스'
03.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커스텀 하우스'
05. 06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 이안 로건(Ian Logan)이 동행하면서 글렌버기 증류소 곳곳을 친절히 안내했다

05

06

Aberdeen Asset Management Scottish Open

Aberdeen Asset Management
Scottish Open

스코틀랜드에서 펼쳐지는 전설적인 명승부
애버딘 에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

1972년에 처음 시작된 스코티시 오픈은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대회로, 발렌타인은 이 골프 토너먼트를 2007년부터 꾸준히 공식 후원해 오고 있다. 스코틀랜드라는 태생적 공통점을 공유한 골프와 발렌타인답게, 지금처럼 긴밀한 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 올해도 발렌타인은 4일간의 대회 기간 동안 발렌타인 퍼블릭 바, 발렌타인 시그니처 홀 등을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통 링크스인 로열 애버딘에서 개최된 스코티시 오픈은 코스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선수에게만 우승을 허락하는 대회였다. 보리와 맑은 물과 공기와 오크의 성분이 어우러지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 좋은 위스키가 만들어지듯 바다에서 부는 바람과 억센 러프를 이겨내고 토양을 이해하고 인내한 저스틴 로즈가 마침내 우승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_ J골프 김두용 기자

01

02

03

04

>>
01. 4일간 많은 갤러리들이 로열 애버딘 골프 클럽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02. 03. 다양한 연산별 발렌타인을 즐길 수 있었던 VIP 라운지(좌)와 발렌타인 VIP 바(우)
04.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도 참가하여 경쟁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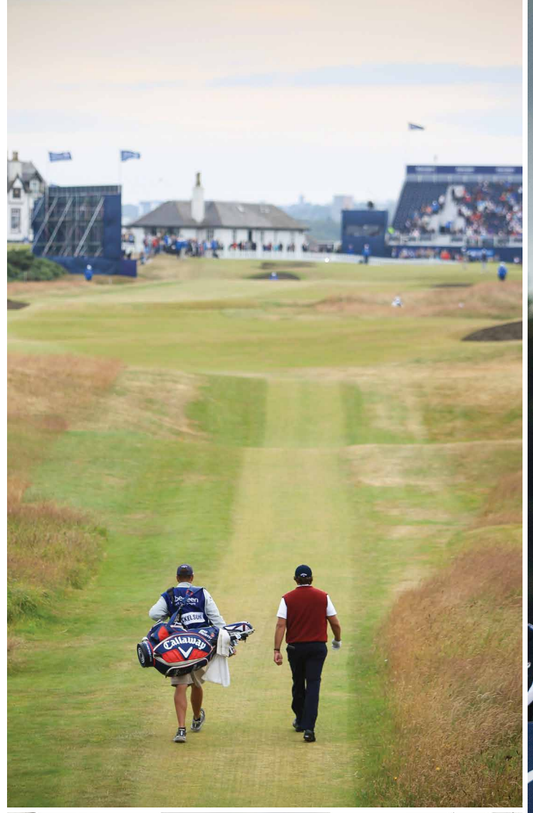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의 경기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 더불어 VIP 라운지에서 관람하는 특권까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필 미켈슨의 플레이를 눈앞에서 한참이나 넋 놓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꿈만 같다.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챔피언' 오순석

스코티시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스코틀랜드 골프인들의 자긍심이 물씬 묻어나는 한 판 경기였다. 특히 골프를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지역 주민들, 갤러리들의 매너가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18홀에서의 경기를 VIP 전용 파빌리온에서 관람한 것은 돌이켜 봐도 일생일대의 행운이었던 듯하다. _ LUEL 강보라 기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2014 스코티시 오픈 관람을 위해 경기가 열리는 로얄 애버딘 골프클럽으로 향했다. 럭셔리한 런치, 무제한 제공되는 음료와 발렌타인 위스키까지 감동의 연속이었다.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멋진 대우를 받다니, 발렌타인에 너무나 감사하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어니 엘스,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필 미켈슨, 필드의 패셔니스타 리키 파울러, 새로운 골프 황제 로리 맥길로이 등 TV에서나 볼 수 있는 유명한 선수들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났다. 그리고 필 미켈슨에게는 모자에 사인도 받았다. 가방에 우산에 카메라까지 들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여 많이 힘들었지만,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 내게 2014 스코티시 오픈은 그렇게 기억될 듯 하다.

_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토너먼트 '메달리스트' 김인중



01

03

02

>>

01. 02. 대회장 곳곳에 발렌타인 바가 마련되어 갤러리들의 인기를 끌었다
03. 발렌타인 시그니처 홀로 꾸며진 17번홀
04. 화창한 날씨 속에 자유롭게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갤러리들
05.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저스틴 로즈

04

05

위대한 유산

위스키 애호가에게도, 골프 마니아에게도 스코틀랜드는 언젠가 정복해야 할 마음의 성지다. 발렌타인 위스키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증류소 글렌버기 그리고 골프 규칙이 처음으로 성문화된 세인트앤드루스에서 그 위대한 역사의 최초를 되짚어보았다. 에디터 강보라 사진 제공 페르노리카 코리아

발렌타인 위스키의 심장, 글렌버기 증류소

위스키를 좋아한다. 퇴근길에 집에 꼬불쳐둔 위스키 생각만 해도 해죽해죽 웃음이 난다. 근처에 괜찮은 위스키 바가 있다면 기꺼이 이사할 용의도 있다. 그중에서도 데일리 위스키로 애용하는 건 단연 발렌타인이다.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고 버터캔디 같은 발렌타인 17년을 혀로 살살 굴려가며 '역시 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하며 홀로 흡족해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발렌타인은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카치위스키다. 그런데 이 '국민 위스키'라는 명성이 때때로 진정한 '음미'를 방해하기도 한다.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소홀해지는 것이다. 에디터 역시 그저 믿고 마시는 위스키 정도로만 인식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 천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전통적으로 골프를 후원해온 발렌타인의 초청으로,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된 것이다. 뭐랄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고향을 방문하는 기분이었다.

애버딘 공항 근처 호텔에 짐을 부리고 10여 명의 일행과 함께 버스에 올랐다. 스코틀랜드의 정원이자 '황금의 삼각지'라 불리는 스페이사이드 지역, 에든버러 북쪽에 자리한 글렌버기 증류소가 우리의 목적지였다. 증류소에 가까워질수록 차창 밖 보리밭이 리드미컬하게 출렁거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증류소 부근의 품질 좋은 이 보리가 바로 발렌타인의 핵심 원료이자, 글렌버기가 이곳에 세워진 가장 큰 이유였다.

그날따라 순후한 날씨 덕이었을까? 칙칙한 공장 지대는 그럼에도 운치가 있었고 그림엽서 속 풍경처럼 아기자기하게 다가왔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몇 대의 트럭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장 벽마다 붙어 있는 빽빽한 시간표가 눈에 들어왔다. 전국에 분포된 여러 증류소의 몰트 원액이 적시적지에 모이고 섞여 발렌타인이라는 한 병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그 여러 증류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증류소가 바로 이곳, 1810년에 지어진 글렌버기 증류소다. 발렌타인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한 해가 1827년이니, 글렌버기는 창업자 조지 발렌타인이 이곳을 사들이기 전부터 증류소로 기능해온 셈이다. 일반적인 증류소가 각종 프로그램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것과 달리 글렌버기는 외부인의 입장을 철저히 제한한다. 정해진 기간에 소수의 VIP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물론 에디터는 〈루엘〉의 기자라는 특권을 등에 업고 '소수의 VIP'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지만 말이다.

한국에서 몇 번 마주친 바 있는 발렌타인의 글로벌 앰배서더 이언 로건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글렌버기 증류소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몰트들이 섞이고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곳이지요." 전차처럼 요란하게 덜컹거리는 공장을 상상했건만 내부는 의외로 고요했다. 여섯 대의 증류기가 내뿜는 달콤한 열기만이 이곳의 분주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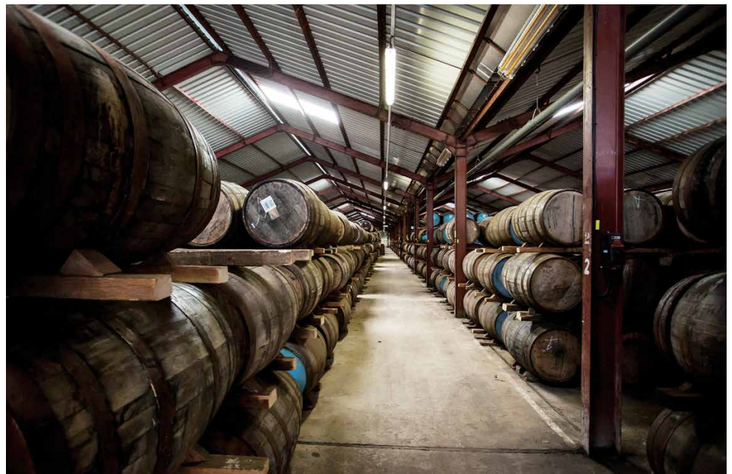
> 글렌버기 증류소는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몰트들이 섞이고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곳이지요.

10여 미터 높이의 거대한 증류기는 시종 부글거리며 보리와 물을 섞고 끓이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리는 지난 2007년, 글렌버기의 개보수를 단행했습니다. 18세기식 시스템으로는 오늘날의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든 발렌타인이 1초당 2병씩 팔립니다. 이곳에서만 한해 400만 리터를 생산하니까 병으로 치면 7500만 병쯤 되겠네요." 뒤이어 위스키를 만드는 전 과정을 견학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보리를 갈고 물과 섞어 끓이고 정제하는 모든 과정이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자동화 시스템 아래 돌아가고 있었다. 단추를 누르고 밸브를 돌리고 원액을 옮기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장인의 오라를 풍겼다.

공장에서 나온 이언 로건은 뒤편 저장 시설 중 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거무튀튀한 알코올 덩어리가 벽면에 눌어붙어 건물 전체를 이끼처럼 뒤덮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을 열어젖히자 서늘한 기운이 훅 끼쳤다. 얼룩덜룩한 오크통들이 첩첩이 쌓인 채 깊은 숨을 내뱉고 있었다. "우리는 버번이나 셰리 와인을 보관했던 헌 오크통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발렌타인 고유의 맛과 향을 내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발렌타인 원액이 황금빛으로 숙성되는 풍경을 실제로 마주하고 나니 감동을 넘어 자못 숙연한 기분마저 들었다.

마지막으로 시음장으로 향했다. 창업자인 조지 발렌타인의 옛집, 발렌타인의 역사가 깃든 그 소박한 박물관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단종된 발렌타인 파이니스트를 비롯해 12년, 17년, 21년, 30년산을 시음하며 맛있는 수다를 이어갔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미 여러 번 마셔본 위스키인 만큼 이보다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기대한 게 사실이다. 이언 로건은 그런 에디터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흡사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9와 3/4 승강장처럼 비밀스러운 장소로 우리를 안내했다. 오두막 아래 숨겨진 그 지하 저장고에는 좀 더 스페셜한 위스키들이 무르익고 있었다. 발렌타인의 원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몰트 원액을 저장해두는 장소였다. 술기운이 오른 이언은 기분이다 싶었는지 갑자기 1969년 밀튼더프 몰트의 오크통을 시원하게 뚫어 모두에게 한 잔씩 따라주었다. 46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밀튼더프 원액. 그 황홀한 몰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시간에 시간을 엮어 비로소 세상에 동아줄을 내리는 발렌타인 위스키의 연륜은 종종 한 시대를 뛰어넘는다. 에디터는 이 모든 것을 글로만 알았다. 꿀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글렌버기 증류소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장인과 첨단의 장비들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글렌버기 증류소는 속도와는 한참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다.



* 위 기사는 매거진 루엘
2014년 9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세인트앤드루스의 '올드 코스'는 골프의 발상지, 말 그대로 골프라는 스포츠가 가장 먼저 태어나고 행해진 장소로 알려져 있다.

*위 기사는 매거진 루엘 2014년 9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 골프인의 마음의 고향,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에든버러 동쪽에 자리한 소도시, 세인트앤드루스. 전 세계 골프인들이 '평생 한 번은 꼭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성지순례 코스다. 그중에서도 세인트앤드루스의 '올드 코스(Old Course)'는 골프의 발상지, 말 그대로 골프라는 스포츠가 가장 먼저 태어나고 행해진 장소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여정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두 유산인 위스키와 골프의 역사를 더듬어가는 과정이었던 셈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세인트앤드루스의 골프 기원설에 위스키가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는 대략 이렇다. 1858년, 세계 최초의 골프 클럽 '더 로열 앤드 에인션트(The Royal and Ancient)'에서 골프의 홀을 총 몇 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 그때 한 원로 회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1홀을 갈 때마다 한 잔의 위스키를 마신다네. 겪어보니 총 18잔을 마시면 한 병을 비우게 되더군. 그러니 1라운드는 18홀이 안성맞춤이야!" 그렇게 하여 오늘날의 18홀이 성문화됐다는 믿지 못할 얘기.

그런가 하면 '목동들이 드넓은 목초지에서 작은 공을 가지고 놀면서 시작됐다'는 그 유명한 전설 역시 이곳 올드 코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양치기 소년들의 공놀이라니,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소설만큼이나 황당한 설화지만 막상 이곳을 실제로 밟아보면 그 모든 것이 '팩트'라는 믿음이 퐁퐁 솟아오른다. 수백 년 전 형성된 자연 목초지를 그대로 골프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좁은 페어웨이와 억센 러프, 항아리 벙커로 요약되는 올드 코스는 해안 지대에 조성된 전형적인 링크스(Links) 코스로,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이 많아 웬만해선 좋은 스코어를 기대하기 어렵다. 바꿔 말하면 바닷바람이 조각한 거대한 자연이 골퍼들에게 극한의 모험을 선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매끄럽게 조성된 여느 코스와 달리 울퉁불퉁한 모래땅과 골퍼들의 발목을 잡는 변화무쌍한 바람, 위대한 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이 다이내믹한 지형이야말로 골프 마니아들이 오매불망 이곳에서의 라운딩을 기다리는 이유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삼오오 골프채를 들고 돌아다니는 가족들이었다. 그곳에서 골프란 흔히 말하는 귀족 스포츠가 아닌, 온 주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평범한 취미 생활인 듯했다. 그러나 올드 코스만큼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높은 성벽인 모양이다. 곁에 있던 한 골프 전문 기자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라운딩할 수 있는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서 라운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최소 1년 전에 예약을 하거나, 혹은 올드 코스가 보이는 호텔에서의 숙박이 포함된 값비싼 투어 상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주야장천 스타터 근처에 머물면서 빈 티타임이 나기를 기다리거나, 셋 중 하나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드 코스는 사실, 그저 걸어 다니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멋진 산책로였다. 필드를 따라 늘어선 인도가 그 자체로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여느 골프장과 달리 모든 코스가 오픈되어 있어 골퍼들의 경기와 주변의 바다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다. 일행 중 누군가는 "전 세계 어느 골프 코스도 자신의 코스를 아무나 돌아보게 하지 않는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골퍼들 또한 관광객으로 가득한 갤러리를 즐기는 듯했다. 이곳 티잉그라운드에서는 일반인도 마치 선수처럼 한 무리의 구경꾼을 곁에 두고 라운딩할 수 있는 것이다.

2014 스코티시 오픈에서 '발렌타인 골프 클럽'을 경험하다

마지막 일정은 에든버러 북쪽의 항구도시 애버딘에 자리한 로열 애버딘 골프 클럽.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오래된 클럽인 이곳에서는 2014 스코티시 오픈 경기가 한창이었다. '스코티시'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스코티시 오픈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스코틀랜드 골프인들의 자긍심이 깃든 대회다. 1870년에 문을 연 로열 애버딘 골프 클럽에서 그 역사적인 첫 대회가 열렸다고 하니 세인트앤드루스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골프 마니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라 하겠다. 이곳 역시 거의 모든 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링크스 코스로, 매해 미국 〈골프 다이제스트〉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코스'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뿔뿔이 흩어진 우리는 제각각 좋아하는 선수를 쫓아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누볐다. 에디터는 올해 4대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2승을 챙겼다는 로리 매길로이의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정작 경기보다 인상적인 것은 골프를 마치 축제처럼 즐기는 지역 주민들과 갤러리의 성숙한 매너였다. 한편 우승자인 저스틴 로즈의 18홀 마지막 경기를 VIP 전용 파빌리온에서 감상한 것은 두고두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뿌듯한 경험이었다.

발렌타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번에도 스코티시 오픈의 메인 스폰서로 참가했는데 다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경기가 열리는 17번 홀에서 프리미엄 멤버십 클럽인 '발렌타인 골프 클럽'을 공개한 것이다. 알다시피 17번 홀은 골프 경기에서 마지막 한 홀을 앞두고 열띤 승부가 펼쳐지는

장소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발렌타인의 시그너처 모델인 17년을 염두에 둔 상징적인 선정으로 보였다. 골프와 위스키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발렌타인 골프 클럽은 앞으로 발렌타인의 가치를 알리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클럽의 가입은 웹사이트(www.ballantinesgolfclub.com)에서 가능하다. 위스키 시음, VIP 호스피, 골프 팁과 시상식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제공할 이 웹사이트는 10월에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정식 오픈할 예정. 클럽의 첫 번째 캡틴으로는 스코틀랜드의 유명 프로 선수 이언 폴터가 선정됐다. 트레이드마크인 격자무늬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는 "발렌타인 골프 클럽을 통해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발렌타인에 대한 애정을 살포시 드러냈다. 영국 정통 골프웨어 '이언폴터 디자인(IJP Design)'의 오너인 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프로 선수인 동시에 대회가 있을 때마다 날짜별로 각기 다른 옷을 준비할 만큼 열성적인 패션니스타이기도 하다. 막간을 이용해 그와 짤막한 인터뷰를 나눴다.

INTERVIEW

발렌타인 골프 클럽 최초의 캡틴 **이언 폴터**

그는 옷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대회 기간에 옷 가방을 잃어버린다는 상상은 그에게 하나의 트라우마와도 같다.

타이거 우즈가 아닌 당신이 발렌타인 골프 클럽의 캡틴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음, 타이거 우즈는 항상 잘 치는 선수다.(웃음)
자신이 발렌타인 골프 클럽을 대표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대중적이면서도 프리미엄한 브랜드가 바로 발렌타인이다. 나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를 좋아하는 편이고, SNS를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길 즐긴다. 아마 그런 점이 발렌타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듯하다.
골프에 있어 상당히 분석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내 자신을 프로페셔널로 만드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경기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다. 해당 코스의 특성을 파악하는 건 경기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한 성향이 평소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지?
물론이다. 내가 입을 옷들은 언제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바지, 셔츠, 바지, 셔츠…. 경기 기간에 입을 옷을 정하는 것은 나의 큰 즐거움 중 하나다. 항상 날짜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챙겨두면 손이 갈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내 가방을 만질 수 없다. 만약 대회 중에 옷 가방이 없어진다면 나는 그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거다. 깔끔하게 기권하고 집에 갈 거다. 이런 성향이 집안일에도 꽤 도움이 된다.(웃음)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골프 관련 징크스가 있다면?
딱히 징크스랄 건 없고, 연습할 때 티에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놓는다.
발렌타인의 새로운 슬로건은 '스테이 트루(Stay True)'다. 당신의 스테이 트루(진정성)는 무엇인가?
긍정적으로(Be Positive)!

어떤 성지 여행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즐겼고, 발렌타인 위스키를 마셨다. 발원지가 주는 경외감을 만끽하며.

에디터 이재연(jyeon@noblesse.com) **사진 제공** 페르노리카코리아

세인트앤드루스의 올드 코스

올드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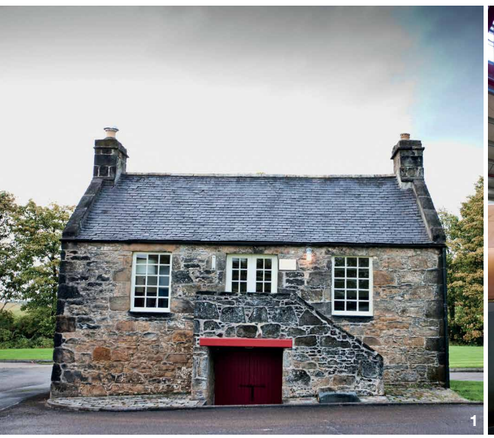
나는 골프를 잘 모른다. 사실 관심도 없었다. 아저씨들의 스포츠. 좋게 말하면 비즈니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접대를 위한 수단. 일단 비용과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의 밸런스만 틀어지는 운동. 그런데 이런 내가 올드 코스에 갔다. 사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윌리엄 왕자 부부가 처음 만나 연애한 곳이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이라는 것만 떠올렸을 뿐. 바로 이곳이 골프 애호가라면 누구나 평생 한번 가보길 갈망하는 곳이라는 것을, 골프 문화가 태동한 이른바 '골프의 성지(聖地)'라는 것을 현지에 가서야 알았다.

골프의 유래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골프의 어원은 스코틀랜드의 고어라는 설이 유력하다. '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커퍼(cuff)의 c가 스코틀랜드식인 g로 변해 고프(goulf)가 되었고, 이것이 점차 골프가 되었다는 것.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를 즐긴 역사는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세인트앤드루스에 정식 골프장이 들어선 건 1754년, 그것이 지금의 올드 코스다. 세인트앤드루스 클럽 소속이던 앨런 로버트슨과 톰 모리스 부자가 세계 최초의 프로 골프 선수로 알려졌다. 그들 중 특히 아버지 톰 모리스에게 주목해야 한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지형이 낳은 링크스 코스(바닷바람이 부는 해안 코스)를 재정비하고, 중구난방이던 골프 규칙을 반듯하게 정리해 지금의 형식(예를 들어 18홀)을 만든 인물이다. 그의 아들 톰 모리스 주니어는 19세에 대회 3연패를 기록하며 현재 아이돌 스타급의 인기를 누렸으나 24세에 요절, 세인트앤드루스의 공동묘지에 묻혔다(그의 묘비는 올드 코스 못지않은 관광객의 셔터 플레이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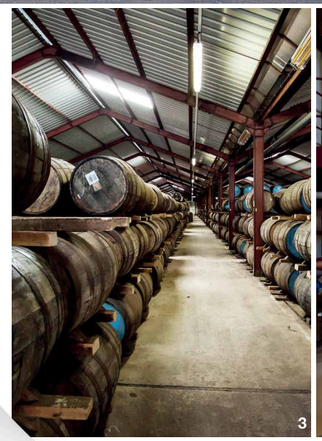
올드 코스는 내가 다녀본 현대적 골프 코스와 많이 달랐다. 코스 중간에 어떤 그늘집이나 클럽하우스도 없이 1홀부터 18홀까지 한 방향으로 돌아서 나오는 구조다. 공원처럼 개방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데, 필드를 따라 갤러리를 위한 인도가 나 있어 산책하듯 편히 둘러볼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의 사람들. 내 집 앞에서 골프를 즐기는 듯한 여유로운 자태. 어릴 적부터 놀이처럼 골프를 즐긴 사람만이 몸에 밸 수 있는 자연스러움.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자연과 그 안에 스며든 문화가 문득 너무 부러웠다.

글렌버기 증류소

골프는 잘 모르지만 발렌타인 위스키에 대해선 안다. 원체 술에 약한 체질이라 많은 양을 마시진 못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것. 그리고 그 블렌딩의 핵심인 원액을 이 글렌버기 증류소에서 만든다는 것. 글렌버기 증류소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북동쪽의 소도시 알베스머리 지역에 위치한다. 1810년 설립한 200년 된 증류소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그러나 시바스 브러더스 헤리티지 &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담당 디렉터 피터 프렌티스에게 10년 전 리모델링해서 모던해졌으니 예스러운 향취는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미리 들은 터였다. 내부 역시 최신식 증류 시설로 채웠다. 10m 높이의 증류기 6대가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현장. 발렌타인의 글로벌 앰배서더 이언 로건의 설명을 들으며 보리의 싹을 틔우고 발효, 증류를 차례로 거쳐 맑은 원액이 되는 과정을 차분히 둘러봤다. 발렌타인은 세계에서 1초당 2병씩 팔리고, 이곳에서만 한 해에 400만 리터를 생산하는데 이는 곧 7500만 병 분량이라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보통 발렌타인은 40~45가지 원액을 블렌딩하는데 글렌버기는 꿀과 서양배의 풍부한 과일 향과 감미로운 달콤함을 담당한다고 했다. 4일에 걸쳐 탄생한 맑은 위스키 원액은 숙성고에 들어가 버번이나 셰리 주를 보관하던 오크통에 담긴 후 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친다.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불러줄 때까지 스코틀랜드의 거친 바람 소리를 들어야 한다. 저장고에서 나오니 신식 건물 사이에서 튀는 유독 낡은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유일하게 남겨놓은 초창기의 건물로 지금은 방문자를 위한 시음 공간으로 쓰인다. 이곳에서 더 이상 국내에선 만날 수 없는 파이니스트(논빈티지)와 발렌타인 12년을 포함해 17년, 21년, 30년을 차례로 시음했다. 같은 원액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연산에 따라 향과 맛이 다채롭게 느껴진다. 이언은 특별한 선물을 하겠다며 지하로 내려가 즉석에서 오크통을 뚫고 1969년산 밀턴더프 증류소의 위스키 원액을 따라 건넸다.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향긋하고, 달콤한 여운이 오래도록 입안을 감싼다. 오래된 위스키의 맛, 세월이 만든 정직함. 감동의 메아리에 빠져 있는 내게 이언은 "이것이 바로 발렌타인이 추구하는 가치(stay true)"라고 말했다.



1 방문자는 200년 전에 지은 역사적 건물에서 발렌타인 위스키를 시음할 수 있다. **2,4** 거대한 구리 증류기가 열기를 내뿜는 증류소 내부 **3** 위스키 원액 숙성고. 12년 된 발렌타인 위스키 원액이 아메리칸 버번 오크와 셰리 오크에 담겨 있다.



* 위 기사는 매거진 노블레스
2014년 9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2

3

1 로열 애버딘 골프 클럽에서 열린 2014 스코티시 오픈 결승전에서 로리 매킬로이가 신중하게 퍼팅하는 모습
2 2014년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3** 발렌타인 골프 클럽의 캡틴으로 임명된 이언 폴터

스코티시 오픈

발렌타인이 후원하는 애버딘 애셋 매니지먼트 스코티시 오픈 결승전을 참관했다. 장소는 애버딘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클럽인 로열 애버딘. 시내에서 불과 차로 5분 거리에 완벽한 링크스 코스가 나타났다. 실제 골프 경기를 눈앞에서 보는 것은 난생처음이었다. 이럴 땐 잘하는 선수 한 명을 정해 1홀부터 18홀까지 함께 돌면서 코스도 느끼고 경기의 룰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찍은 사람은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젊은 승부사 로리 매킬로이.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스윙, 유연함과 힘이 맘에 들었다. 경기 초반 연속 버디를 잡으며 타수를 줄여나가나 싶었는데 10번 홀부터 무너지는 그를 보았다. 골프가 멘털 게임이라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내가 응원한 선수는 순위가 많이 밀렸지만, 골프 경기를 참관하는 내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TV로 볼 때는 정지 화면처럼 지루했는데 현장의 모습은 중계방송도 없고, 오히려 TV보다 적막이 흘렀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3D 영화만큼이나 감각적이었다. 공기 중의 수분, 풀 냄새, 러프의 단단함, 항아리 모양 벙커의 위용, 티샷을 날릴 때의 경쾌한 타음,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들의 눈빛, 발소리까지 죽이며 선수를 따라가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는 갤러리들의 배려와 매너…. 발렌타인도 위스키 라운지를 운영하며 선수와 갤러리를 격려했다.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면 발렌타인 30년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발렌타인의 인기 모델인 17년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마지막 홀을 한 홀 남기고 승부를 가르는 곳에서의 이벤트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아주 영민한 선택이었다. 경기를 보고 나니 골프가 좋아졌다. 골프에 임하는 사람들의 진지함과 진실함이 가슴에 와 닿았다. 발렌타인의 슬로건 'Stay True'가 문득 다시 생각났다. 이날 밤 숙소에서 마신 발렌타인 한 잔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느껴졌다.

발렌타인 골프 클럽

발렌타인과 골프의 인연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런던 웬트워스 골프 클럽에서 발렌타인 토너먼트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골프 대회를 후원해왔다. 발렌타인이 많은 스포츠 중 골프를 택한 이유는 둘 다 스코틀랜드에서 기원했고, 이미지가 고급스럽기 때문이다. 골프를 향한 끈질긴 애정은 이제 골프 선수와 팬, 발렌타인 애호가가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까지 만들기에 이르렀다. 발렌타인 골프 클럽은 이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온라인 골프 클럽이다.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무료. 콘텐츠가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지만, 최소 17년씩 원액을 묵혀 위스키를 만드는 곳이니, 품질과 명성에 목숨 거는 회사이니만큼 믿어도 좋다. 세계 유명 프로들이 동영상을 통해 직접 스윙 자세와 코스 관리에 대한 팁을 알려주고, 멤버십 토너먼트 개최나 발렌타인 테이스팅 등의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 발렌타인은 골프 클럽의 성공을 기대하며 이언 폴터를 캡틴으로 내세웠다. 이언 폴터는 골프계의 소문난 멋쟁이다. 화려한 색상과 체크무늬 옷을 즐겨 입어 폴터 스타일을 만들었으며, LJP라는 자신의 골프 웨어 브랜드를 런칭할 정도로 패션광이다. 그는 팬과 가장 소통을 잘하는 골퍼이기도 한데 트위터 팔로워가 1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소셜 네트워킹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물론 세계 랭킹 28위로 실력도 수준급. 이 정도면 캡틴에게 필요한 자격은 갖춘 듯싶다. 실력과 비즈니스 마인드, 엔터테이너와 신사의 이미지까지 모두. 이언 폴터는 "발렌타인 골프 클럽의 캡틴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굉장히 멋진 경험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발렌타인 골프 클럽의 회원 가입은 웹사이트(www.ballantinesgolfclub.com)에서 가능하다. 아직은 프리 오픈 단계로 10월에 완벽하게 준비해 모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Ballantine's

STAY TR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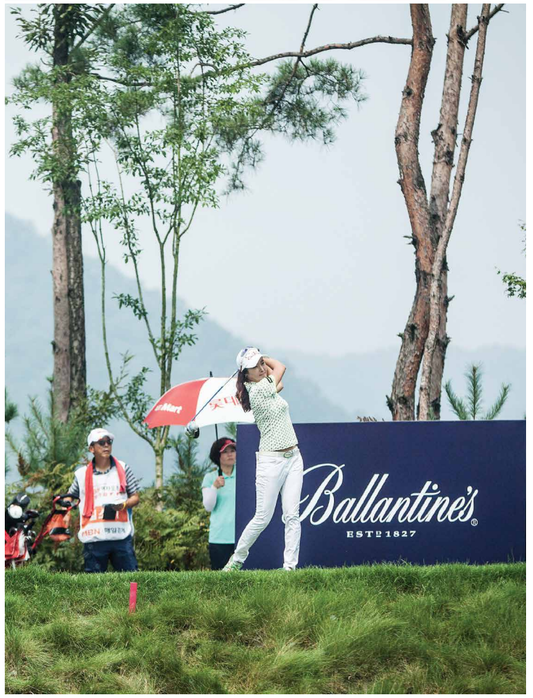
LEAVE AN IMPRESSION

Golf Tournament with Ballantine's

발렌타인과 한국 골프의 기분 좋은 인연은 계속된다

위스키와 골프를 사랑하는 국내 팬들을 위한 발렌타인의 골프 마케팅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발렌타인은 KPGA 코리안투어 '야마하 한국경제 제57회 KPGA 선수권대회'와 KLPGA 투어 'MBN 여자오픈 with ONOFF' 대회를 공식 후원하면서, 갤러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한국 골프 발전에 꾸준한 힘을 보탰다.

01



한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도 프로 골퍼들과 골프 팬들의 열정을 막진 못했다. 국내 골프 투어가 중반으로 접어들며 상위권 선수들의 경쟁으로 혼전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오히려 많은 갤러리들이 대회장으로 모여들었다. 골프를 향한 관심과 애정은 발렌타인도 뒤지지 않았다. 지난 5월 KPGA 코리안투어와 KLPGA 투어 대회를 한 차례씩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7월과 8월에도 2개 대회의 공식 스폰서로 함께하면서, 국내 골프 팬들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각 대회마다 발렌타인은 갤러리 광장에 발렌타인 부스를 마련해 경기장을 찾는 이들에게 발렌타인만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했다. 부스에는 골프 팬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2014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으며, 스탠딩 바에서는 발렌타인 칵테일을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 중에서도 '발렌타인 17 후레쉬' 칵테일은 무더위 속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청량한 매력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대회 기간 중 매일 오후 3시면 갤러리를 대상으로 칵테일 100잔을 무료 제공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성황리에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발렌타인은 대회 참가 선수들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를 별도로 준비하면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에게 깜짝 선물을 안겼다. '발렌타인 17'을 떠올리게 하는 17번홀을 '발렌타인 시그니처 홀'로 지정하고, 이 홀에서 '이글' 혹은 '버디' 등 지정된 미션을 성공하는 선수들에게 발렌타인 17 등 다양한 기프트를 증정했던 것. 골프 팬들은 물론 선수들에게까지 충분히 전해진 발렌타인의 골프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더하는 다양한 이벤트는 대회 기간 내내 필드 안팎에서 펼쳐졌다. 스스로의 진정성을 지켜가면서 자연스레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발렌타인의 〈STAY TRUE〉 캠페인처럼, 서서히 발렌타인의 매력이 모두에게 스며드는 순간들이었다.

>>
01. 발렌타인 시그니처 홀에서의 미션 이벤트를 통해 '발렌타인 17'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02. 갤러리들의 발길로 분주했던 발렌타인 부스
03. 대회 기간 동안 관심을 끌었던 '발렌타인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

02

03

Ballantine's Special Interview with Star Players

필드를 향해 변치 않는 열정을 쏟아내는 진정한 리더, 'STAY TRUE'를 말하다

프로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그들이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그들만의 귀중한 가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KPGA/KLPGA 대표 스타 플레이어들과 그들만의 STAY TRUE(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순간마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인내(PERSISTENCE)를 잃지 않는 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굳은 다짐입니다."

매튜 그리핀(Matthew Griffin)
2014 야마하 한국경제 제57회 KPGA 선수권대회 우승

"저에게 있어 목표는 성취했을 때의 희열보다 또 다른 목표를 다시 꿈꾸게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LPGA 무대에서 쟁쟁한 선배들과 경쟁을 펼치는 것이 제 다음 목표입니다."

김세영
2014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 MBN 여자오픈 with ONOFF 우승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발렌타인은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의 일환으로, 매 순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진정성을 추구하고(STAY TRUE)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LEAVE AN IMPRESSION) 프로 골프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그들의 골프 인생과 스스로에 대한 진정성을 화두로 하는 다양한 스토리를 지면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장동규
2014 JGTO투어 게이트웨이 투 디오픈
미즈노오픈 우승

골프 투어를 시작하게 된 자체가
저에겐 **행복**이에요. 제가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김우현
2014 제2회 해피니스 송학건설 오픈 우승 /
보성CC 클래식 우승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듯
늘 좋은 스코어를 낸다는 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박준원
2014 제33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물론 경기가
잘 풀릴 때도 최대한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시합에 임하면
항상 마무리가 좋더라고요.

김승혁
2014 SK Telecom 오픈 우승

경기 중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 있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음을 되새겨요. 앞으로 다가올 희망적인
일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요.

윤채영
2014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후배들에게도 제가 긍정과 희망의 롤모델로
비쳐졌으면 좋겠네요.

김민선
2013 그랜드 1879 드림투어 9차전 우승

그 순간을 즐기니까 비로소 길이 보이더라는
한 선배의 조언이 기억에 남아요.
저 역시도 꾸준한 연습을 밑바탕으로 삼고,
즐거움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려고 해요.

이정민
2014 제1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 우승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와 자신만의 개성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가장 애를 써요. 가령 시합에서
버디를 성공하더라도 과한 액션보다는
최대한 겸손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김보경
2013 KLPGA E1 채리티 오픈 우승 /
제3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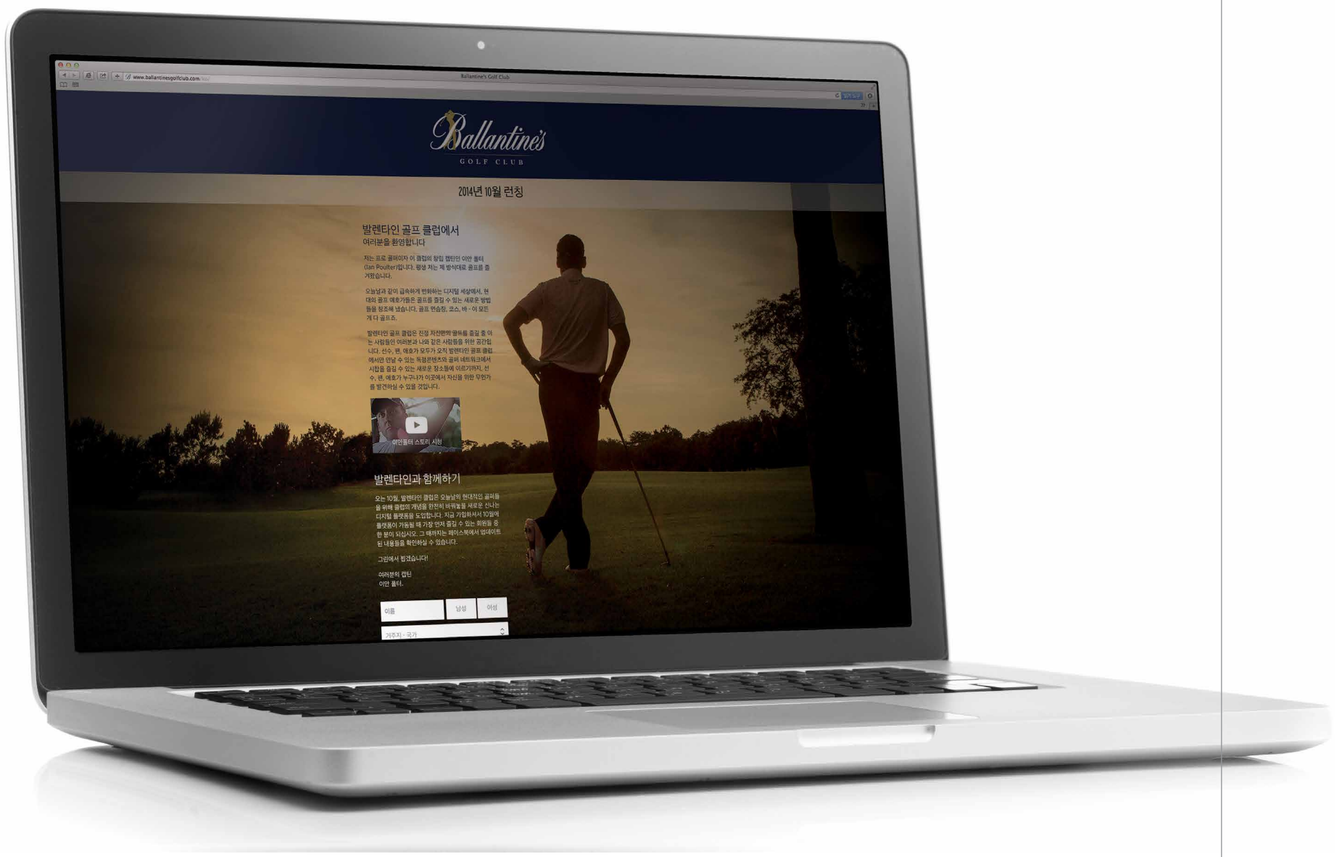
성실함은 타고난 재능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바로 눈앞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 그 결실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BALLANTINE'S GOLF CLUB

Ballantine's GOLF CLUB

세계적인 골프 선수 이안 폴터가 함께하는
발렌타인 골프클럽 글로벌 런칭

발렌타인과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길 새로운 웹사이트, 발렌타인 골프클럽이 2014년 10월 글로벌 런칭한다. 프로 골퍼와 골프 애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는 물론 발렌타인 골프클럽의 창립 캡틴으로 선정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이안 폴터(Ian Poulter)가 전하는 그만의 레슨과 노하우 등 특별한 정보를 전할 예정이다.



발렌타인 골프클럽 최초의 캡틴
이안 폴터(Ian Poulter)

뛰어난 경기 운영은 물론 패션에도 관심이 많아 필드 위의 모델, 패셔니스타로 불리며 골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개최됐던 발렌타인 챔피언십에도 꾸준히 참가하면서 발렌타인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올해 발렌타인 골프클럽의 창립 캡틴으로 선정되면서 골프클럽을 이끌 첫 수장으로서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2012년 WGC HSBC챔피언스 우승
2011년 호주 마스터스 우승
2010년 WGC 액센츄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

평생 저는 제 방식대로 골프를 즐겨왔습니다.
발렌타인 골프클럽은 저처럼 진정
자신만의 골프를 즐길 줄 아는
골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직 발렌타인 골프클럽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점 컨텐츠와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장소들에 이르기까지. 선수, 팬, 애호가 모두가 이 안에서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렌타인 골프클럽에 지금 가입하셔서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안 폴터**_ 2014 발렌타인 골프클럽 캡틴

최상의 품격과 위상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은 변함없는 열정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스포츠 중 하나인 골프와 함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프로페셔널의 가치를 꾸준히 전하고 있다. 발렌타인 골프클럽은 이러한 골프의 정신을 이해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프리미엄 멤버십 클럽으로, 독자적인 컨텐츠를 통해 클럽 멤버만을 위한 혜택과 이벤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공간이다.

발렌타인은 이 사이트를 통해 상위 랭킹 25위 이내의 프로 골퍼들이 아마추어 골퍼와 함께하는 게임을 개최, 실력을 떠나 골프를 사랑하는 멤버들로 구성된 친목 도모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발렌타인 골프클럽 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발렌타인과 골프가 공유하는 정신인 〈STAY TRUE〉를 마주하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발렌타인 골프클럽은 사이트 오픈과 함께 스타 플레이어인 이안 폴터를 창립 캡틴으로 선임하며 그가 제안하는 스윙이나 코스에 관한 팁 등 유용한 골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그는 2000년 유러피언 투어, 2005년 PGA 투어에 입성한 이래 월드 골프 챔피언십(2010 & 2012), 바클레이스 싱가포르 오픈(2009), 볼보 월드 매치 플레이 챔피언십(2011) 등 이미 14회에 걸친 우승 경력을 쌓은 선수다. 특히 2012년 라이더컵에서 유럽 연합팀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대역전의 우승 드라마를 쓰기도 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운영 능력은 물론이고 패셔니스타로 명성을 떨치며 의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만큼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도 팬들의 눈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그의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국내외 골프 행사 정보와 소비자 참여 이벤트들은 발렌타인 골프클럽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발렌타인 골프클럽의 글로벌 사이트 주소는 www.ballantinesgolfclub.com이며, 국내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www.ballantinesmc.com)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Column by Ballantine's Influencer

드라이버의 선택 요령

모든 골퍼들의 공통된 희망 가운데 하나는 장쾌한 비거리와 안정된 방향성 그리고 착착 달라붙는 짜릿한 손맛을 기대할 수 있는 드라이버(DRIVER)를 찾는 일일 것이다.

MFS 골프 대표이사 / 체육학 박사
전재홍(jjh@mfsgolf.com)

드라이버는 골프의 진정한 상징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날 게임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는 호쾌한 샷을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 버리는 시원함이 느껴진다. 아마도 골퍼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드라이버는 장쾌함을 느낄 수 있는 기분학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실전 경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18홀 중 14번 이상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중요성은 물론 드라이버의 미스샷은 세컨샷의 부담으로 연결되어 좋은 스코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드라이버 선택 시 살펴보아야 될 사항은 첫째 드라이버의 사용 목적이다. 장쾌한 비거리(飛距離)와 안정된 방향성(方向性), 감칠맛 나는 타구감(打球感)과 경쾌한 타구음(打球音) 등이 드라이버를 결정 짓는 진정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목적에 자신을 대입시켜 클럽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브랜드와 가격 정도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은 금물이다. 즉 자신의 신체적 특징과 스윙 형태 및 볼의 구질 등을 꼼꼼히 따져야 된다는 것. 예를 들어 비거리가 잘 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단순히 스윙이 잘못되었거나 클럽이 좋지 않다고 연결 짓는 일차원적 결정보다는 구체적이고 확률적인 데이터를 통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드라이버를 잡기만 하면 롱 게스트 아니면 OB라고 치자. 이런 경우 골퍼들은 비거리보다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클럽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상대적이듯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방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럽의 길이가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샤프트 강도가 약한 것보다는 조금 강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볼의 탄도가 낮은 골퍼라면 로프트각이 큰 제품을 선택함은 물론, 딥 페이스(deep face)의 헤드보다는 샬로우 페이스(shallow face)의 헤드를, 헤드의 무게 중심이 위쪽(crown)보다는 바닥쪽(sole)에 있고 샤프트의 킥 포인트가 'LOW-KICK'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볼을 가장 잘 친다는 PGA나 LPGA 프로들도 클럽을 선택할 때, 헤드는 계약사의 제품으로 선택하지만 시중에 있는 제품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본인의 스윙 형태와 스윙 데이터를 통하여 무게와 강도, 길이 등을 결정한다. 또한 샤프트의 경우는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철저한 데이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스펙으로 적용한다. 이때 스윙 데이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헤드의 접사 각도, 초기 볼의 발사각, 헤드 스피드와 볼 스피드, 백 스핀양과 사이드 스핀양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모든 제품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설계, 제작되기 때문에 클럽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신과의 일치점을 찾은 뒤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개 프로가 쓰고 있으니 나도 쓴다는 식은 오히려 골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선택하기를 권해 주고 싶다. 끝으로 드라이버 결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굳이 꼽으라면 브랜드나 강도, 길이, 가격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무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무게에는 클럽의 총 무게와 헤드의 무게를 결정 짓는 스윙 웨이트(S/W)가 있는데, 단지 감이 아닌 분석 장비 등을 통해 산출되는 정확한 데이터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Column for Golfers

발렌타인과 골프는 하나다

발렌타인과 골프. 이 둘은 스코틀랜드가 우리에게 준 크나큰 선물이다. 위스키와 골프는 얼핏 공통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둘 다 스코틀랜드를 고향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사업국장
박호윤(phy2006@kpgt.com)

발렌타인은 세계의 애주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품 위스키로, 골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몸소 즐기는 명품 스포츠로 발전해 오면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매김에 성공했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발렌타인은 지난 1960년 영국의 명문 골프 클럽 웬트워스에서 열린 발렌타인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꾸준히 훌륭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골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2008년부터는 발렌타인의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창설해 6년간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골프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다. 세계적 토너먼트를 직접 경험하기 쉽지 않은 국내 선수들은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바로 발렌타인이 펼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이다. 매 순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만의 진정성을 추구하고(STAY TRUE), 인상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성과를 거둔다(LEAVE AN IMPRESSION)는 의미다. 페르노리카 그룹은 위스키와 골프의 심대한 가치와 감동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캠페인을 펼쳐 나가고 있다. 올해 열린 국내 남녀 골프 대회를 통해 스타 플레이어들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찾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자신들만의 어떠한 특별한 진정성이 성공의 원동력이 됐는지를 알아 봄으로써 팬들에게 골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열린 KPGA 코리안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대회인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과 KLPGA투어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는 발렌타인 17을 상징하는 17번홀을 '발렌타인 시그니처 홀'로 지정해 특별 이벤트를 펼침으로써 골프 팬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각 대회의 17번홀은 발렌타인 특유의 고급스러운 라운지와 아치, 브랜드 보드 등을 설치해 눈길을 끌었으며, 미션 이벤트를 통해 선수들에게 발렌타인 17을 증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스타급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성공을 이끈 진정한 가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끄집어 냄으로써 발렌타인과 골프 그리고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미PGA투어에서 1승을 올리며 성공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상문 프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해 KPGA 선수권 우승자인 김형태 프로는 "골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가족의 사랑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 했고 2011년 발렌타인 대상에 빛나는 홍순상 프로는 "골프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이 순간까지 나를 움직이게 한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었다"고 되돌아 보기도 했다.

이렇듯 선수마다 자신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성공을 향한 노력과 그 가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STAY TRUE)'과 그로 인한 성취의 감동(LEAVE AN IMPRESSION)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오는 12월 중순이면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남자프로골프계 최대의 잔치인 '2014 코리안투어 발렌타인 대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시즌을 빛낸 별중의 별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연말 축제이자,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스타들의 진솔한 모습과 그들이 보여준 감동의 순간을 되새김하는 자리다. 올해도 그 뜻깊은 자리에 발렌타인이 함께한다. 언제나 발렌타인과 골프는 하나다.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발렌타인은 새롭게 선보이는 〈STAY TRUE〉 광고 캠페인을 통해 '세월이 흘러도 자신만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STAY TRUE), 깊은 인상을 남기라(LEAVE AN IMPRESSION)'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다.

“21년 후에도 난 이익이 아닌
열정을 위해 작품을 만들 것이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Enjoy Ballantine’s responsibly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Innovation

03

Explore Ballantine's Innovation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으로 진정한 감명을 남기는
발렌타인의 쉼 없는 행보처럼,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의지.
혁신은 그렇게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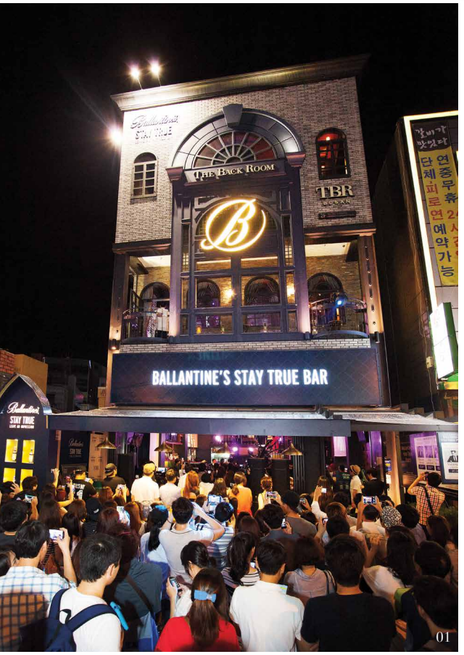
Ballantine's Stay True Bar @TBR in Busan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또 다른 여행, 한여름 바닷가에서 발렌타인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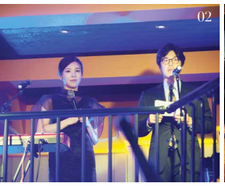
올여름 발렌타인은 보다 젊고 트렌디한 방식으로 발렌타인을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더백룸(The Back Room)'에 '발렌타인 Stay True Bar'를 오픈했다. 이 특별한 공간은 발렌타인의 〈STAY TRUE〉를 구성하는 'Innovation(혁신)', 'Flair(스타일)', 'Passion(열정)', 'Authenticity(진정성)'의 4가지 테마를 메인으로 꾸며졌다. 또 테마별 뮤직 콘서트와 색다른 푸드 · 칵테일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해 발렌타인의 '아트 오브 블렌딩'을 폭넓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BALLANTINE'S
Stay True Bar

Opening



01


02

03

>>
01. 오프닝 파티가 시작되자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들
02.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
03.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파티의 밤이 깊어갔다

2014.07.18

발렌타인에 물든 해운대의 여름밤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 오프닝 파티

지난 7월 18일 새롭게 문을 연 '발렌타인 Stay True Bar(이하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는 한 여름의 열기, 청춘의 열정으로 가득한 해운대를 들썩이게 하면서, 새로운 핫플레이스의 탄생을 예고했다. 오프닝을 앞두고 진행된 '스트릿 퍼포먼스'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파티'까지,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 고유의 매력에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장점이 더해지자 지나가던 이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멈췄다.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는 한 마디로 STAY TRUE(진정성) 그 자체였다. 3층으로 이루어진 각 층의 공간들은 발렌타인의 STAY TRUE 스토리를 반영한 감각적인 바 스타일링과 영상들로 채워졌다. 이곳을 찾은 고객들이 자신만의 진정성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됐다. 또 참석한 이들은 STAY TRUE 마스터에게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발렌타인 칵테일을 추천받거나, 각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정성에 대한 메시지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경쾌한 브라스 밴드의 연주가 바 내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MC 최서영의 사회로 오프닝 파티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는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는 발렌타인의 STAY TRUE 정신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특별한 컨셉 공간"이라며 첫 인사를 대신했다. 또 "이곳을 찾은 모든 분들이 여러분만의 진정한 STAY TRUE를 발견하시기를 바란다"는 오프닝 소감을 밝혔다. 이어 페르노리카 코리아 최선영 부산지역 영업지점장이 축사와 함께 건배를 제의했다. 한 달간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를 통해 선보인 색다른 콜라보레이션의 주역, 피터 바텐더와 김신 셰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들이 직접 개발한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과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파티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 즈음, 객석의 환호 속에 첫 번째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파티'의 메인 뮤지션인 버벌진트가 등장했다. 힙합을 대표하는 뮤지션과 발렌타인의 만남으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만큼, 버벌진트를 향한 객석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 뜨거웠다. 발렌타인의 〈STAY TRUE〉 중 'Innovation(혁신)'을 테마로 연출된 그의 공연은 오프닝 파티의 피날레를 인상 깊게 장식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질 흥미로운 여정을 예고했다.

>>
01. 객석을 사로잡은 버벌진트의 무대
02. 03. 여러 차례 진행된 스트릿 퍼포먼스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04. DJ들의 열정적인 공연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01

02

03

04

아트 오브 블렌딩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

"부산 해운대에서 위스키 브랜드 최초로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를 오픈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여 년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전하고 있는 발렌타인 위스키와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정신처럼, 이곳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STAY TRUE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_ 페르노리카 코리아 부산지역 영업지점장 **최선영**

진정성이 녹아든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

"최상의 위스키인 발렌타인의 맛과 향, 전통을 살리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진정성, STAY TRUE의 메시지를 요리에 녹여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중해풍의 퓨전 다이닝,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해운대의 무드에 발렌타인 17의 맛과 향이 모두 어우러진 이 특별한 푸드 콜라보레이션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_ 셰프 **김신**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의 새로운 시도,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발렌타인의 맛과 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고,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위스키 칵테일을 개발했습니다. 트렌디하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칵테일을 마음껏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_ 바텐더 **피터**

1st Floor

Flair & Passion

여름에 즐기는 발렌타인 위스키와 스페셜 다이닝

오프닝을 시작으로,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에서 새롭게 선보인 푸드 · 칵테일 콜라보레이션은 이곳을 찾게 하는 또 다른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스타 셰프 김신, 바텐더 피터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와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이 바로 그것으로, 평소 위스키를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던 여성들의 섬세한 입맛까지 사로잡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와 발렌타인 칵테일을 활용한 다양한 세트 메뉴를 런치와 디너 시간대별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해운대에 휴가차 방문했다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를 찾은 정유정 씨는 "위스키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은 처음 마셔 보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었다"며 본인이 느낀 발렌타인 칵테일의 매력을 소개했다. 또 친구와 함께 이곳을 들른 이길원 씨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임에도 발렌타인 칵테일은 무척 부드러워 부담이 없었다"며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와 칵테일의 조화로운 맛 때문에 계속 손길이 간다"고 만족스러운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01

02

03

>>

01. 이곳을 찾은 많은 고객들이 발렌타인의 색다른 콜라보레이션을 경험했다
02. 지중해풍의 퓨전 요리로 미각을 자극했던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
03. 04. 여성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던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

04

Time Event

Free Ballantine's Cocktails!

야외에 마련된 오픈바에서는 매일 오후 3시와 6시, 프리 칵테일을 제공하는 타임 이벤트가 열렸다. 시원한 슬러시로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12 아이스', 상쾌한 매력의 '발렌타인 12 후레쉬'가 이벤트 타임마다 100잔씩 무료 제공되어, 무더위로 지친 고객들에게 시원한 휴식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해운대를 찾은 많은 인파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행렬이 한없이 길게 이어지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2nd Floor

Innovation & Art of Blending

발렌타인만의 '아트 오브 블렌딩'을 한자리에서 경험하는 공간

오픈된 분위기의 1층 공간과 달리 1층 벽면의 비밀스러운 문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는 2층은 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무드를 선사했다. 매년 단 100병만 생산되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정수, 발렌타인 40 역시 2층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볼거리 중 하나였다. 고급스러운 우드 쇼케이스에 진열된 발렌타인 40은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귀한 빛을 발하며 시선을 한곳으로 끌어모았다. 발렌타인의 다양한 라인업은 물론 발렌타인 17의 4가지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까지, 한자리에서 발렌타인의 '아트 오브 블렌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공간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었다. 더불어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스탠드 바와 편안한 테이블 공간,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야외 테라스도 그 매력에 한 몫을 더하며, 어느 작은 부분 하나 놓칠 게 없는 인상 깊은 장면을 연출했다.

01

>>

01. 아트 글라스와 함께 전시된 발렌타인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
02.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비밀스러운 문 너머로 위치해 있다
03. 발렌타인만의 무드를 반영한 2층의 스탠드 바
04. 발렌타인의 패밀리 레인지 전체를 만나 볼 수 있었던 야외 테라스

02

03

04

01

발렌타인의 헤리티지와 블렌딩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시간

기존 '드링킹' 위주의 음주 문화를 '테이스팅' 우선의 음용 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발렌타인의 '테이스팅 퍼스트(Tasting First)' 캠페인의 자취는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에서도 이어졌다. 그 일환으로 발렌타인 고유의 헤리티지와 블렌딩의 가치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와 감각적인 위스키 칵테일의 음용법을 제시하는 '위스키 칵테일 클래스'가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시간대별로 열렸다. 클래스는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 바텐더 피터가 각각 진행을 맡았다.
3층은 발렌타인의 무드와 STAY TRUE 스토리를 전체 실내 공간에 반영한 것이 큰 특징이었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발렌타인의 헤리티지를 엿볼 수 있었다. 발렌타인을 상징하는 문장(Crest)과 발렌타인의 창업자 조지 발렌타인, 블렌딩의 미학을 선사하는 시그니처 디스틸러리를 소개하는 소품 하나에까지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다. 특히 이 공간은 '프라이빗 파티 룸'으로도 활용되면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발렌타인의 철학과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02

03

Heritage & Luxury

3rd Floor

>>

01. 다양한 시간대별로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가 마련됐다
02. 03. 발렌타인의 헤리티지를 엿볼 수 있었던 실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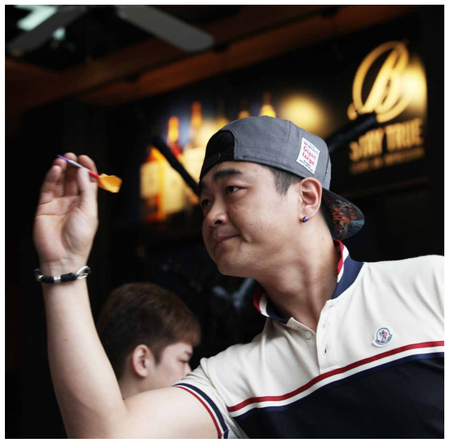
Special
EVENT

Ballantine's Darts Championship Tournament

발렌타인 다트 챔피언십 토너먼트

한 달간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 한편에 마련된 다트 이벤트존에서는 매일 600점 이상 획득한 고객에게 '사이드 디쉬 바우처'를 제공하는 카운트업 다트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8월 15일에는 데일리 최고 득점자 중 9명을 선정, '발렌타인 다트 챔피언십 토너먼트'를 개최하면서 최종 챔피언을 가렸다. 토너먼트는 팽팽한 접전 끝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친 김태현 씨가 우승을 차지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부상으로는 '발렌타인 30'이 제공됐다.

Winner's Interview



"열정을 가지고 임했을 때,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처럼요"

_ 발렌타인 다트 챔피언십 토너먼트 우승자 **김태현**

발렌타인 다트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뒀는데, 그 소감은_
평소 다트를 취미로 즐기고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다트는 역경을 딛기 위한 발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더 열정을 다했고,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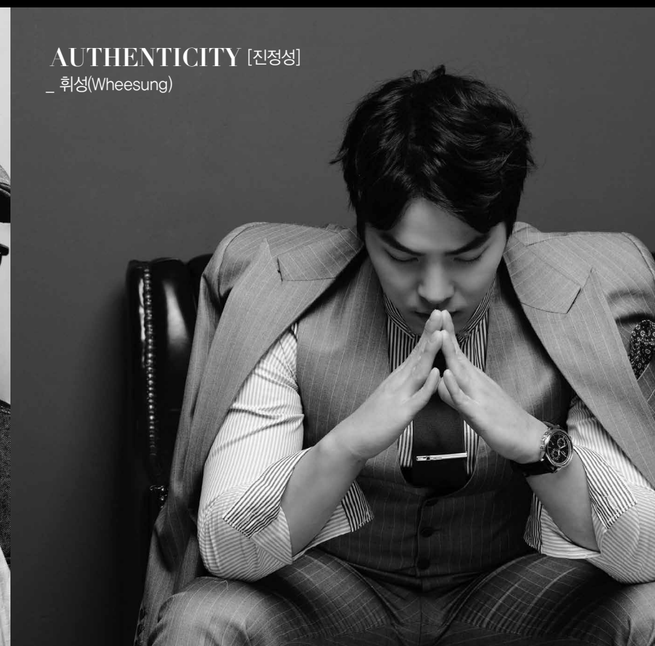
발렌타인 30을 부상으로 수여받았는데, 소장 계획은_
아주 특별한 위스키인 만큼 개인적으로 늘 감사드리는 은사님께 선물하려고 합니다. 평소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아마도 받으시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발렌타인 30처럼, 30년 후의 자신은 주위에 어떠한 인상을 남겼으면 하는지_
누구나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꿈이 아닐까요. 저 역시도 30년 후에는 그 바람을 이뤄 선후배 모두에게 존경 받는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네요.

Ballantine's Stay True Party

여름밤을 수놓은 4가지 테마와 장르 그리고 4색 보이스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파티

'발렌타인 Stay True Bar'에서는 매주 발렌타인의 〈STAY TRUE〉에 담긴 'Innovation(혁신)', 'Flair(스타일)', 'Passion(열정)', 'Authenticity(진정성)'를 테마로 하는 뮤직 콘서트가 열렸다. 힙합 · 어쿠스틱 · 모던락 · R&B를 각각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자리를 빛냈고, 저마다의 무대를 통해 그들만의 STAY TRUE를 음악으로 진솔하게 표현해 주었다. 오랜 감명을 남기는 독창적인 블렌딩의 발렌타인처럼, 특색 있는 그들만의 선율과 메시지가 담긴 한여름 밤의 파티는 늦은 밤까지 긴 여운을 남겼다.



Opening Party 2014.07.18 FRI

Innovation

발렌타인의 철학과 정신이 반영된 '발렌타인 Stay True Bar'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던 오프닝 데이. 그 화려한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파티가 뮤지션 버벌진트의 무대로 꾸며졌다. 첫 파티는 발렌타인의 〈STAY TRUE〉 정신 중에서도 'Innovation(혁신)'을 테마로 진행됐다. 메인 호스트로는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과 뛰어난 랩 실력으로 한국 힙합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버벌진트가 나섰다. 공연에 앞서 그는 "혁신을 주제로 하는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파티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첫 인사를 건넸다. 뒤이어 "스스로에게 진실된 음악을 하면서, 앞으로도 진정으로 가고 싶은 방향을 따르는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STAY TRUE〉의 의미를 전했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고 버벌진트의 귀에 착 감기는 랩,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현장은 함성과 환호로 가득 찼다. 한 곡 한 곡을 이어갈 때마다 객석과 소통하면서도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모습은 발렌타인이 추구하는 '혁신'의 관점과도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다. 매 순간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그의 목소리 너머로 자연스레 내비쳤다.

Verbaljint

힙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혁신을 제시하다

_ 버벌진트(Verbaljint)

'혁신'이란 세상에 새로운 시야를 던져 주는 것,

"저의 첫 등장 자체가 'Innovation(혁신)'이라는 이미지와 맞물려서 이뤄졌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틀에 대해 의식하지 않았어요. 힙합이라는 색깔은 지니고 있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길 원했고요."

자신에게 진실되게,

"음악을 만들면서도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내 마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려고 해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8월의 첫 금요일, 두 번째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파티가 열렸다. 이번 파티는 'Flair(스타일)'를 테마로 하는 만큼 이를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독자적인 음악 스타일을 통해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10cm가 선정됐다.

먼저 공연을 앞둔 오후 시간부터는 이날의 파티를 홍보하는 스트릿 퍼포먼스가 해운대 일대에서 진행되었는데, 시선을 끄는 깜짝 이벤트에 시민들은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밤이 저물고 예정된 파티 시간이 다가오자 발렌타인 Stay True Bar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많은 참석자들로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곧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기타 선율과 어쿠스틱 사운드가 실내 가득 울려 퍼지자 현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귓가를 맴도는 매력적인 보이스와 발렌타인의 만남은 많은 참석자들을 이내 낭만적인 여름밤으로 안내했다.

일상에서의 솔직한 화법이 그대로 녹아든 가사는 물론, 때로는 조용히 속삭이듯 때로는 시원하게 내뿜는 보컬 권정열 특유의 음색은 10cm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표현하기에 충분했다. 이는 다채로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매 순간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발렌타인의 STAY TRUE 정신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모습이었다.

Flair

2nd Party 2014.08.01 FRI

10cm

어쿠스틱 그루브로
뚜렷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남기다

_ 십센치(10cm)

10cm만의 컬러로,

"새로운 스타일링을 통해 발렌타인을 보다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과 같이, 저희의 음악도 너무 진지하고 무겁지 않게 저희들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려고 해요."

공유하는 즐거움,

"음악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즐거움'을 더욱 채워준다는 맥락에서 발렌타인 역시 좋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Passion

"어때요, 저희의 공연에서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굳이 물어 보지 않더라도 세 번째 파티 현장을 가득 메운 뜨거운 열기가 대신 대답해 주고 있었다. 태풍의 영향으로 부는 바람마저 한껏 달구어진 발렌타인 Stay True Bar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장치로 여겨질 만큼, 이날의 주인공 델리스파이스와 이곳을 찾은 관객들은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여름밤을 남김 없이 불태웠다.

귀에 익은 모던락 사운드와 함께 객석에 전해지는 델리스파이스의 기분 좋은 에너지는 테이블에 앉거나 빽빽하게 서 있는 관객들의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만들었고, 감성적인 멜로디와 노랫말은 변함없는 감동을 전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탄탄한 밴드를 지탱케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직접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국내 대중음악계에 등장한 이래,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모던락 장르의 한 획을 그은 델리스파이스는 확연한 자신들만의 음악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밴드다. 언제나 한결같으면서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들의 모습은 발렌타인 위스키 그리고 발렌타인의 〈STAY TRUE〉와도 부합한다. 바로 이 점이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파티에서 만난 델리스파이스가 몸에 잘 맞는 수트를 입은 듯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느껴진 이유는 아닐지.

Delispice

모던락의 불씨를 일으켜
열정으로 이어 나가다

_ 델리스파이스(Delispice)

데뷔 후 17년간 변치 않는 열정,

"기타 줄을 막 긁어 대면서 연주에 너무 몰입했던 나머지, 공연이 끝나고 나서야 기타가 피범벅이 되고 손에서도 피가 나고 있다는 걸 발견했던 적이 있어요. 공연하는 그 자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Myself,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유혹들에 휘둘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Myself', 나 자신을 STAY TRUE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Authenticity

Closing Party
2014.08.16 SAT

발렌타인 Stay True Bar, 그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8월 16일. 클로징 파티가 열리기 세 시간 전부터 입구 앞에 이어진 긴 행렬과 그들의 표정은 한여름의 해운대를 떠올릴 때의 젊음과 열정을 대변하는 풍경이기도 했다. 휘성을 향한 이러한 기대는 그 동안 뮤지션으로서 축적해 온 그의 가치를 실감하게 했다. 등장하자마자 "관객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곡을 들려주고 싶다"며 운을 띄운 휘성은 대부분의 곡들을 무반주로 시작하며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창력으로 감상하는 이들을 연신 매료시켰다. 즉흥적으로 요청 받은 곡도 망설임 없이 들려 줬다. 공연 중간에 계속되는 요구로 그가 선글라스를 벗자 "살아 있네!"라는 부산다운 반응이 쏟아지며 한층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대형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호응 속에 12년간 함께한 내공이 느껴지는 팬과 가수의 호흡이 발렌타인 Stay True Bar를 가득 메웠다. "듣고 부르며 마음으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음악처럼, 오감으로 즐긴다는 공통 분모를 가진 위스키 역시 저에겐 음악과 같다"고 표현한 휘성은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발렌타인과 그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을 그의 진실된 목소리로 증명했다. 음악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완벽을 추구하는 휘성이 아니었다면 그 가치를 느낄 수 없었을 지도 모를 '살아 있는' 밤이었다.

Wheesung

마음을 감싸는 R&B로
그만의 **진정성**을 지켜내다

_ 휘성(Wheesung)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지금 돌이켜 보면 마냥 노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뮤지션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진실된 마음이 제 음악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죠."

Real Slow,

"제 모든 곡에는 'Real Slow'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하는데, 한 단계씩 천천히 밟아 나아가자는 의미에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다짐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냈었거든요."

BALLANTINE'S LINE-UP

Ballantine's 40

두 거장의 손끝에서 실현된

200여 년간의 열망

최상의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창립자 조지
발렌타인의 열망을 2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실현시킨 위스키의 정수로, 매년 단 100병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Ballantine's 30

소수의 선택된 분께만 허락되는

최고의 프리미엄

수작업으로 직접 고른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가
최소 30년의 숙성 기간을 거쳐 완벽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한정된 수량으로 소수만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명품 위스키가 탄생한다.

Ballantine's Limited

진귀한 몰트만으로 빚어낸

최상의 위스키

희소성 높은 몰트들로 블렌딩되어 그 특별함을 더하며,
가장 진귀한 원액과 3대의 마스터 블렌더에 의해 완성된
장인정신의 결정체답게 병마다 고유번호가 새겨져 있다.

Ballantine's 21

예술적 스타일을 지닌

스코틀랜드의 자부심

위스키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위스키로,
향기로운 꽃향기, 아로마틱한 풍미와 더불어 비단처럼 부드럽게
혀에 감기는 은은하고도 긴 여운을 지닌 위스키의 대명사다.

Ballantine's 17

이상적인 스카치 위스키의 가치를 실현하는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 브랜드

선명한 황금 호박색으로 오크 향의 달콤함과
감미로운 바디감을 지니고 있으며, 우아하고 균형 잡힌
부드러움으로 위스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발렌타인의 대표작이다.

Ballantine's 17

Glenburgie 200th. Anniversary Edition

1st. edition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200주년

발렌타인 17 블렌딩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글렌버기 몰트가 강조된 에디션으로, 사과 향에 꿀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감촉으로 오랜 여운을 남긴다.

Ballantine's 17 Scapa Edition

2nd. edition 발렌타인 17 스카파

이국적이고 드넓은 스카파 해안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었으며,
발렌타인 17의 완벽한 부드러움의 근간이 되는 스카파 몰트가
강조되어 풍부한 과일의 맛과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룬다.

Ballantine's 17 Miltonduff Edition

3rd. edition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발렌타인 17의 우아한 부드러움의 근간을 이루는 밀튼더프 몰트가
강조되었으며, 과즙이 풍부한 오렌지, 계피의 스파이시한 풍미가
밀튼더프 고유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Ballantine's 17 Glentauchers Edition

4th. edition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발렌타인 17의 완벽한 피니시를 담당하고 있는 글렌토커스 몰트가
강조되었고, 부드러운 라즈베리와 견과류 향, 따뜻함을 담은 긴 여운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

Ballantine's Master's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탄생한
발렌타인 가문의 새로운 도전

위스키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출시된 스페셜
에디션으로, 45가지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해
부드럽고 달콤한 맛과 그윽한 여운을 선사한다.

Ballantine's 12

클래식과 모던이 조화된
색다른 향의 미학

꿀과 꽃의 달콤함과 크리미한 오크 향, 스파이시한 느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부드러우면서도 복합적인 풍미를 자아낸다.

“17년 후에도 나는 변함없이
내일을 디자인할 것이다”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Enjoy Ballantine’s responsibly

04
Art of Blending

Discover tastes of Ballantine's

무한한 채색의 가능성을 품은 도화지와도 같은
발렌타인이 지닌 블렌딩의 미학을 알고 싶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으로 그 오롯한 풍미를 음미하는 것 외에는.

Ballantine's Signature Collaboration

여름 바다를 물들인 감각적인 마리아쥬 발렌타인 시그니처 콜라보레이션

일관된 블렌딩을 고수해 온 전통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혁신을 동시에 지닌 발렌타인이 그 상관관계 안에서 또 다른 블렌딩의 미학을 발견해 냈다. 컬러풀하고 시원한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과 지중해의 활력을 담아 낸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가 바로 그것이다. 낯설고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콜라보레이션이 지난 여름 모두의 가슴에 설렘을 더했다.

스타 셰프 김신의 유러피안 퓨전 메뉴와 바텐더 피터의 위스키 칵테일이 이국적이면서도 감미로운 조화를 이루는 발렌타인 시그니처 콜라보레이션은 발렌타인의 철학과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발렌타인의 〈STAY TRUE〉 정신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이에 부합하는 콜라보레이션에 도전한 김신 셰프와 피터 바텐더. 그들이 선보이는 감각적인 다이닝과 칵테일은 발렌타인 Stay True Bar를 찾은 이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선한 매력을 지녔다.

발렌타인의 복합적인 맛과 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발렌타인의 메시지를 자신의 요리에 녹여내고자 했다는 김신 셰프의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들은 발렌타인의 풍미에 모던하고 세련된 그의 스타일이 더해지며 훌륭하게 재해석됐다. 그는 자신의 요리 속 그 어떤 재료에도 애정을 담는 그만의 〈STAY TRUE〉, 요리에 대한 '사랑(AMOR)'을 맛으로 직접 증명한다.

발렌타인 위스키의 각 연산별 특색을 섬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피터 바텐더 역시 때로는 가장 한국적인, 때로는 이국적인 재료들을 조합하여 발렌타인만의 풍부한 맛과 향을 위스키 칵테일에 충분히 살려 냈다. 이는 발렌타인의 예술적인 블렌딩의 균형감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완성된 그의 칵테일을 음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가 꼽는 〈STAY TRUE〉인 '정성' 역시 다양한 레시피에 유려하게 녹아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의 칵테일과 함께하는 건배는 유난히 경쾌하면서도 행복한 울림을 전한다.

한 달간 발렌타인 테이스팅의 색다른 문화로 자리잡은 발렌타인 시그니처 콜라보레이션은 새롭고도 일관성을 잃지 않고, 다채로우면서도 그 깊이를 잃지 않으며 발렌타인의 매력을 한껏 배가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Ballantine's Whisky Cocktails

입안에 번지는 발렌타인의 색다른 변주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에서는 완벽한 균형감의 '발렌타인 12', '발렌타인 17'과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마스터즈'를 활용한 다채로운 위스키 칵테일을 선보였다. 거기에 바텐더 피터가 발렌타인 〈STAY TRUE〉의 4가지 주요 테마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위스키 칵테일들이 더해져 나른한 여름의 오후에 깊고 달콤한 여운을 전했다.

발렌타인 17 본연의 풍미에 STAY TRUE 정신을 더한

Ballantine's 17 Cocktails

발렌타인 가문의 대표작으로 수많은 위스키 애호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렌타인 17이 또 한 번 새롭게 변신했다. 피터 바텐더는 발렌타인의 새로운 캠페인에 담긴 4가지 정신 즉, '혁신(Innovation)', '스타일(Flair)', '열정(Passion)', '진정성(Authenticity)'을 칵테일에 반영하여, 발렌타인 17의 풍미를 유지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칵테일을 탄생시켰다.

'발렌타인 17 이노베이션'은 상큼한 자몽과 달콤한 복숭아 향을 가미해 미각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발렌타인 17 플레어'는 블랙 올리브를 곁들여 맛과 향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감각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24시간 정성껏 만든 홈메이드 바닐라 시럽과 시나몬 향, 오크 향 등이 어우러진 '발렌타인 17 패션'은 칵테일 한 잔에 담을 수 있는 열정의 깊이를 가늠하게 한다. '발렌타인 17 어센티시티'는 묵직한 풀바디와 상큼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이 특징으로, 발렌타인 17 본연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독특한 위스키 칵테일이다.

발렌타인 17 이노베이션 | 발렌타인 17 플레어 | 발렌타인 17 패션 | 발렌타인 17 어센티시티

4가지 시그니처 증류소의 특색에 새로운 스타일을 더한

Ballantine's 17 Signature Distillery Edition Cocktails

발렌타인 17의 4가지 핵심 몰트 고유의 풍미를 강조한 자체만으로도 이미 특별한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에 다양한 컬러와 재료가 더해지며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칵테일. 특별히 엄선된 재료가 발렌타인 17 시그니처 디스틸러리 에디션이 가진 특색을 한층 더 부각시켜 준다. 각 보틀을 상징하는 컬러 또한 칵테일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 감각적으로 재구성했다.

발렌타인 17 글렌버기 얼그레이 | 발렌타인 17 스카파 바닐라 | 발렌타인 17 밀튼더프 오렌지 | 발렌타인 17 글렌토커스 베리베리

발렌타인 마스터즈 해운대 | 발렌타인 씨 마스터즈 | 발렌타인 마스터즈 코코 | 발렌타인 마스터즈 레이디 | 발렌타인 마스터즈 허니 진생 | 발렌타인 마스터즈 레몬 애프리콧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상큼함과 청량감을 더한

Ballantine's 12 Cocktails

올 데이 드링크 타입으로 위스키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의 미각까지 부드럽게 자극하는 발렌타인 12 칵테일. 여름에 어울리는 과일들로 싱그러움과 달콤함, 청량감을 배가시켜 활력 넘치는 분위기에 어울리며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발렌타인 12 퍼펙트 서브 | 발렌타인 12 데이지 | 발렌타인 12 스파이스 줄렙 | 발렌타인 12 애플 맥 | 발렌타인 12 썸머 크러쉬 | 발렌타인 12 패션프루트 위스키 사우어

한국인을 위한 위스키에 전통적인 재료를 더한

Ballantine's Master's Cocktails

한국인이 좋아하는 위스키와 한국적인 전통 재료의 조화가 색다른 칵테일. 해운대에서의 추억에 달콤한 여운을 남겨 줄 '갓 파더' 칵테일, '발렌타인 마스터즈 해운대'와 바다의 낭만을 담은 듯 벨벳처럼 부드러운 '러스티 네일' 칵테일, '발렌타인 씨 마스터즈'. 여성들도 부담 없이 즐길 만한 '발렌타인 마스터즈 코코'와 '발렌타인 마스터즈 레이디'. 꿀에 절인 홍삼과 매실이 각각 절묘한 조화를 이룬 '발렌타인 마스터즈 허니 진생'과 '발렌타인 마스터즈 레몬 애프리콧'까지,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흥미로운 미감을 전한다.

피터 바텐더의 STAY TRUE

고객 분들께서는 매번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가 만든 칵테일 한 잔을 드시러 오십니다. 그것이 제가 한 잔의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 그 안에서 메인이 되는 주류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객 분들께 내어 드리는 칵테일 한 잔 한 잔에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Ballantine's Signature Menu

지중해의 활력이 차오르는 미식의 향연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

남국의 정취를 머금은 듯한 향과 컬러, 바다를 닮은 싱그러움까지.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들은 신선한 재료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개성을 유지한 채 감탄을 자아내는 맛으로 관심을 모았다. 발렌타인 위스키와 지중해에서 영감을 얻은 김신 셰프는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를 통해 그 조화로운 맛의 향연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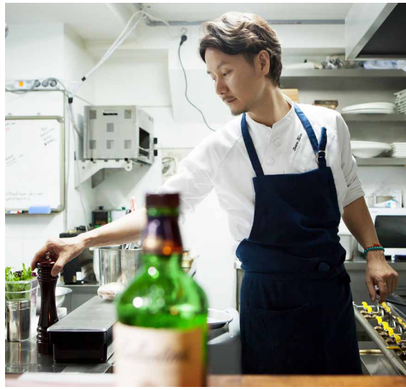
>>
01. 발렌타인 특유의 풍미를 잘 살린 소스로 마무리한 하몽과 머스크 멜론
02. 발렌타인 17로 만든 스페셜 드레싱이 가미된 포크 샌드위치
03. 발렌타인 스페셜 플레이트에 제공되었던 사이드 디쉬
04. 소시지와 새우, 허니 토스트를 곁들인 스페니쉬 요리

올리브앤팬트리의 김신 오너 셰프는 발렌타인이 지닌 가치와 〈STAY TRUE〉 메시지를 이번 콜라보레이션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캐주얼하면서도 정갈한 플레이팅에 우아한 무드를 더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오랜 세월에서 우러나는 발렌타인의 맛과 향, 그 깊이를 메뉴에 고스란히 접목시키는 정성을 다했다.

데이 세트 메뉴는 스페인풍의 병아리 콩과 소시지가 들어 있는 초리초 스프, 매콤한 갈릭 브레드를 비롯하여 발렌타인 17로 만든 드레싱이 가미된 포크 샌드위치, 그릴드 소시지와 대하 새우, 토스트를 곁들인 스페니쉬 브런치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A 세트는 이 중에서 1종, B 세트는 2종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신선한 색감과 맛이 돋보이는 사이드 디쉬와 가볍게 즐기기 좋은 발렌타인 12 위스키 칵테일까지 어우러지면 근사한 지중해풍 코스에 오후 내내 기분이 즐거워진다.

나이트 세트 메뉴는 다채로운 해산물이 가득한 토마토 파스타, 런던 직화식 스테이크, 해산물과 치킨이 어우러진 스페니쉬 볶음밥 중에 메인 디쉬를 선택할 수 있다. 테이블 위를 고소하고 풍요로운 식감의 사이드 디쉬, 발렌타인 17 칵테일 또는 온더락으로 마저 채우면 무더위를 잊게 하는 미식의 밤이 시작된다.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 2층과 3층에서는 발렌타인 스페셜 플레이트를 제공했다. 발렌타인 17의 풍미를 살린 소스로 마무리한 하몽과 머스크 멜론, 다양한 토핑이 추가된 스페니쉬 바게트, 매콤한 갑오징어 튀김, 발렌타인 보틀 모양 플레이트에 담은 야생 버섯과 샐러드, 갈릭 토스트까지 4가지 각기 다른 스타일의 사이드 디쉬를 제안했다. 정갈하면서도 다채로운 구성이 어떠한 발렌타인 위스키나 칵테일과도 잘 어우러지며 발렌타인의 완벽한 균형감을 한층 돋워 준다. 다양한 연산의 발렌타인 위스키가 요리마다 섬세하게 스며든 김신 셰프표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는 따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푸른 바다를 연상케 하는 싱그러운 풍미의 지중해풍 유러피안 퓨전 메뉴들로 채워지며 끝없는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신 셰프의 STAY TRUE

요리사는 항상 **'사랑(AMOR)'**을 합니다. 요리와 관련된 모든 재료와 사랑을 합니다. 꽃과 나무와 자연과, 시금치하고도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맛있는 음식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바칩니다. 그것이 저의 진정한 STAY TRUE입니다.

선선한 바람, 푸른 하늘이 있어 좋은 계절 가을. 또 한 번 당신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영남 지역의 소식을 전합니다. 에디터 신숙미(ssmi@noblesse.com)

다양한 발렌타인 에디션을 갖춘 바

발렌타인 21년산

테이스팅 노트를 그려보는 참가자

'발렌타인 17 패션' 칵테일

Say Ballantine's!

맥주부터 보드카까지, 지난여름 주류 브랜드의 총성 없는 전쟁터였던 해운대. 그중에서도 단연 주목을 끈 것은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운대 TBR에서 열린 발렌타인 팝업 바. 'Stay True', '자신만의 진정성을 유지하라'라는 주제가 오랜 시간 지켜온 발렌타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가운데 지난 7월 18일에는 초대받은 VIP가 참석한 오프닝 파티가 열렸다. 다양한 발렌타인 빈티지로 만든 칵테일은 바텐더 피터가 발렌타인의 맛과 향을 살려 개발한 것으로 특히 17년산으로 만든 '발렌타인 17 패션'이 사랑받았다. 24시간에 걸쳐 직접 만든 바닐라 시럽이 위스키의 시나몬 향과 오크 향과 만나 풍부한 풍미를 보여주었다. 이어진 것은 브랜드의 'Stay True' 캠페인 메시지인 '혁신', '스타일', '열정', '진정성' 중 '혁신'을 대변하는 뮤지션으로 선정된 힙합 뮤지션 버벌진트의 무대! 빠른 비트와 스윙 선율의 만남 속에서 한여름 밤의 파티를 즐겼다.

한편 지난 7월 30일에는 소수의 VIP 15명이 TBR 3층에 모인 가운데,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가 열렸다. 원액과 글렌버기 17 싱글 몰트위스키, 블렌딩 시 사용하는 그레임 위스키 그리고 발렌타인 17년산 총 4가지 글라스를 비교하며 맛보며 발렌타인 본연의 맛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원액부터 점점 점도가 달라지며 풍부한 오크 향과 스모키 향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김지수 브랜드 앰배서더는 "위스키를 마실 때는 그 안에 담긴 맛을 알아내는 것도 재미있고 중요한 일"이라며 참석자들이 시음하고 아이패드에 맛을 기록해보길 권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다. 클래스가 끝난 후에는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스타 셰프 김신 셰프와 발렌타인이 컬래버레이션한 지중해풍 유러피언 퓨전 메뉴와 위스키의 마리아주를 즐겼다. 머스크 멜론에 하몽을 올린 메뉴에는 발렌타인 17년산을 넣어 풍미를 살린 소스를 얹어 색다른 맛을 보여주었고, 매콤한 감오징어 튀김에 플로리다 치폴라의 고추 소스를 곁들인 메뉴는 깔끔한 맛의 발렌타인 17 프레시와 어울리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여름밤에 어울리는 술은 따로 있다

잠 못 드는 열대야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 한여름 밤의 꿈으로 전락시킬 독한 술이 아니라,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착한 술 말이다. 그래서 발렌타인으로 만든 위스키 칵테일을 준비했다. 이 4종의 발렌타인 칵테일은 착한 데다 예쁘기까지 하다.

ASSISTANT EDITOR 장윤희

1 Ballantine's 17 Fresh

온더록 글라스에 발렌타인 17년 30ml, 토닉 워터 90ml를 채운 뒤 섞는다. 조각 얼음을 가득 채우고 슬라이스한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완성. 은은한 과일 향과 청량감이 살아 있는 발렌타인 대표 칵테일로 모든 연령층이 두루 즐길 수 있다.

2 Ballantine's 17 Earl Grey

발렌타인 17년 30ml를 담은 온더록 글라스에 얼그레이 티를 우린다. 헤이즐넛 시럽을 15ml 넣고, 얼음을 가득 채운다. 얇게 벗겨낸 레몬 껍질과 시나몬 스틱으로 장식한다. 은은하게 퍼지는 시나몬과 얼그레이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3 Ballantine's 17 Berry Berry

발렌타인 17년 30m, 라즈베리 시럽15ml, 레몬 주스 30ml를 잘 섞어 마티니 글라스에 넣는다. 조각 얼음을 가득 채운 뒤 라즈베리와 민트 잎으로 장식 한다. 라즈베리 시럽과 레몬 주스의 새콤달콤한 맛이 돋보이는 칵테일로 여자 친구에게 권하기 좋다.

Ballantine's
STAY TRUE
Pop-up bar

발렌타인 칵테일과 함께 즐기는 낭만적인 여름 밤에 당신을 초대한다!

일자 7월 18일~8월 17일
장소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TBR

4 Ballantine's 17 Honey Orange

하이볼 글라스에 발렌타인 17년과 레몬 원액 30ml, 꿀 20ml를 넣고 잘 섞는다. 얼음을 가득 넣은 글라스에, 드라이 진저에일 반, 오가닉 진저에일 반을 넣는다. 바 스푼을 이용해 천천히 저어준 뒤 레몬 슬라이스와 벌집으로 장식한다.

술 한잔하자는 말이 무섭게 들리던 때도 있었다. 말이 한잔이지, 빈 병을 볼링 핀 세우듯 늘어놓는 게 그 당시 술자리 문화였다. 볼링 공 대신 내 몸뚱아리를 던져 스트라이크라도 해야 비로소 이 판이 끝날 것 같았다. 양으로만 승부하던 때는 지나가고 질로 겨루는 시대가 찾아왔다. 제대로 마시자는 것이 요즘 주당들의 트렌드. 남들 다 마시는 그렇고 그런 술은 지양한다는 뜻이다. 이건 여자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다. 술을 많이 먹여 취하게 만들면 내 매력에도 취할 거라는 몹쓸 착각은 당장 버리는 게 좋다.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간다. 취하게 하는 건 술이 아닌 분위기여야 한다. 어렵다고? 어려울 거 없다. 발렌타인에서 해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발렌타인 Stay True 팝업 바에 가면 술, 분위기, 즐거움 등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다. 발렌타인을 베이스로 한 다양한 칵테일과 스타 셰프의 메뉴까지 아낌없이 선보인다. 위스키를 마셔본 적 없는 사람도, 술을 잘 못 마시는 여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낭만적인 여름밤으로 만들어줄 기적의 레시피를 소개한다.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서운해하지 않아도 된다.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부산 해운대 라운지 바 TBR에서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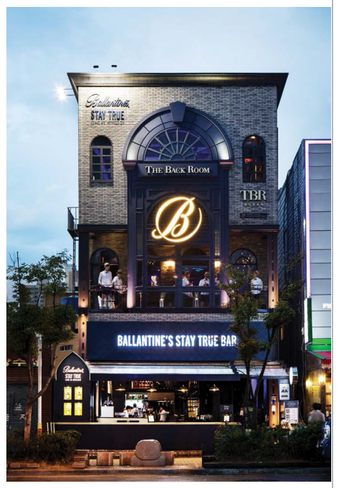
Ballantine's :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발렌타인의 혁신 | **발렌타인 STAY TRUE BAR**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으로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젊은이들에게 한발 자국 다가선 발렌타인이 올 여름 부산에 상륙했다. 보다 새롭고 즐거운 방식으로 발렌타인의 가치와 정신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각자 자신만의 진정성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발렌타인 스테이트루 바(Ballantine's STAY TRUE BAR)'가 7월 18일 오프닝 파티를 시작으로 그 화려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발렌타인 STAY TRUE BAR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라운지바 '더백룸(The Back Room)'에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는 컨셉 팝업바다. 발렌타인 새 캠페인 〈STAY TRUE〉에 담긴 'Innovation(혁신)', 'Flair(스타일)', 'Passion(열정)', 'Authenticity(진정성)'의 메시지를 보다 색다른 방식으로 담았다. 4가지 메시지를 테마로 한 뮤직 콘서트, 푸드·칵테일 콜라보레이션,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렌타인의 매력을 전하는 이 공간은 기존 발렌타인 고객뿐 아니라 젊은 층과 여성들도 위스키의 세계로 한층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발렌타인의 열정 | **발렌타인 STAY TRUE BAR 오픈파티**

발렌타인답게 STAY TRUE BAR 오픈에 앞서 특별한 거리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화이트 셔츠와 밀짚 페도라를 착용한 모델들이 일제히 발렌타인 STAY TRUE BAR 오픈 소식이 실린 신문을 펼쳐 보고 있는 이색 풍경을 연출하며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발렌타인 STAY TRUE BAR 오프닝 파티에는 수많은 VIP 게스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브라스 밴드 '루카스'의 리드미컬했던 공연을 시작으로 바의 오픈을 알리는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김지수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가 무대에 올라 '세월이 흘러도 자신만의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겨라(Stay True, Leave an Impression)'라는 발렌타인의 새 캠페인 〈STAY TRUE〉에 담긴 메시지를 소개했다.



발렌타인 STAY TRUE BAR에서만 한 달간 만날 수 있는 지중해풍의 유러피안 퓨전 메뉴를 개발한 김신세프와, 발렌타인의 맛과 향을 살린 다채로운 발렌타인 칵테일을 완성시킨 바텐더 피터가 무대에 올라 이번 발렌타인 STAY TRUE BAR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오프닝 파티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어 갈 즈음, '경계'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 내며 한국 힙합의 새로운 지평을 연 힙합가수 버벌진트가 등장했다. 발렌타인의 〈STAY TRUE〉에 담긴 4가지 정신 중 '혁신(Innovation)'을 대변하는 뮤지션으로 선정돼 이번 스테이트루 바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발렌타인 칵테일을 즐기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게임도 진행되었다. 타로 카드 형식의 'STAY TRUE카드'를 통해 Innovation', 'Passion', 'Flair', 'Authenticity' 중 각자의 타입을 발견하게 해 주고, 그 타입에 맞는 'STAY TRUE 칵테일'을 찾아 주는 이벤트는 오프닝 파티의 즐거움을 한층 더하며 참가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어 냈다. 매력적인 발렌타인의 세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발렌타인이 지켜 온 신념과 철학을 발견해 나갈 수 있었던 발렌타인 STAY TRUE BAR의 오프닝 파티의 밤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발렌타인의 스타일 | **한여름밤으로부터의 4인4색 파티**

발렌타인은 〈STAY TRUE〉 캠페인 메시지에 담긴 'Innovation', 'Flair', 'Passion', 'Authenticity'의 테마를 힙합·어쿠스틱·모던락·R&B를 대표하는 뮤지션과 함께 선보였다. 'Innovation'의 테마로 열정적인 공연을 펼친 버벌진트를 필두로 10CM, 델리스파이스, 휘성의 멋진 공연이 금요일 밤마다 진행되었다. 부산의 많은 셀럽들이 이곳을 찾아 한여름 밤의 뜨거운 열기를 더했으며 발렌타인 고유의 철학과 가치를 보다 감각적인 방법으로 전했다. 오랜 감명을 남기는 독창적인 블렌딩의 발렌타인처럼, 4명의 뮤지션과 함께하는 감미로운 선율이 한 여름 부산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발렌타인의 밤을 찾은 관객들은 흥분의 도가니로 열정에 흠뻑 취했다. 부산에서 새롭게 시도된 발렌타인만의 새로운 감각이 보다 심금을 울렸을 것이리라.

발렌타인의 진정성 | **헤리티지 뮤인의 특별한 경험**

김지수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발렌타인 전문 홍보대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발렌타인과 헤리티지 뮤인의 만남은 특별했다. 15명의 뮤인의 셀럽, 헤리티지 뮤인이 참여한 가운데 김지수 대사의 유쾌한 설명과 더불어 발렌타인의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본질의 가치, 역사, 기업가 정신, 그리고 마스터 블렌더를 통해 위스키 블렌딩을 예술적인 경지로 끌어올리는 'Art of Blending' 등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다. 또한, 바 운영 기간 동안 발렌타인 고유의 헤리티지와 블렌딩의 미학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발렌타인 테이스팅 클래스'와 감각적인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 음용법을 제시하는 '위스키 칵테일 클래스'를 즐겼으며 김신세프의 지중해풍의 유러피안 퓨전 메뉴를 즐겼다. 기존 발렌타인 애호가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이들이 위스키의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고 발렌타인의 진정한 매력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 가볍게 혹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위스키&칵테일** •

• 새로운 발렌타인을 만나볼 수 있는 •

BALLANTINE'S 17 INNOVATION

상큼한 자몽과 복숭아 향이
발렌타인 17년과 만나
향긋하고 신선한 풍미를 선사하는
위스키 칵테일로,
발렌타인의 혁신(Innovation)을 표현

• 밤이 새도록 즐기는 •

BALLANTINE'S 17 PASSION

24시간 정성껏 만든
홈메이드 바닐라 시럽이 더해져
시나몬 향과 오크 향, 스모키한 벌꿀 향이
조화를 이루는 칵테일로,
발렌타인의 열정(Passion)을 표현

• 꽃중년 그대에게 •

BALLANTINE'S 17 AUTHENTICITY

'올드패션드' 칵테일에
메이플 시럽을 첨가하여 발렌타인 17의
오크 향과 묵직한 풀 바디, 체리와 레몬의
상큼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칵테일로,
발렌타인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표현

• 한여름밤의 꿈처럼 달콤한 •

BALLANTINE'S 12 SUMMER CRUSH

파인애플의 달콤함이
발렌타인 12 피니쉬의 꿀맛을 배가시켜주는
청량감 있는 위스키 칵테일

• 웰빙을 즐기는 그대에게 •

BALLANTINE'S MASTER'S HONEY GINSENG

꿀에 절인 홍삼과 홍차와의 절묘한
조합으로 상큼 달콤한 여운을 남기는
건강식 느낌의 칵테일

• 로맨틱한 여성들을 위한 •

BALLANTINE'S 12 DAIZY

레몬과 레드 자몽이 어우러져
발렌타인 12 특유의 꽃향기를
더욱 배가시켜주는 핑크빛 칵테일

* 위 기사는 매거진 뮤인
2014년 9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The Most Unforgettable Memory @Ballantine's Stay True Bar

발렌타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값진 경험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 & 위스키 칵테일 클래스

새로움을 찾아가는 순간은 언제나 설레는 법. 발렌타인 위스키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또한 그랬다. 지난 여름, 발렌타인 Stay True Bar에서 열렸던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와 '위스키 칵테일 클래스'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며 색다른 설렘과 감동마저 안겼다.

발렌타인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시간 여행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

>>
01. 시음에 앞서 향을 먼저 맡아보는 모습
02. 발렌타인 17에 대한 테이스팅 휠을 작성하고 있는 클래스 참가자

01

발렌타인 속 숨은 매력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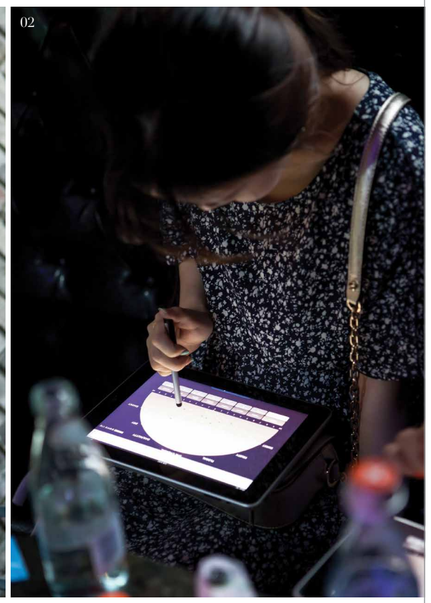
"대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발렌타인 위스키를 입안에 머금으니 더욱 깊고 부드러운 풍미가 느껴졌어요. 오늘 위스키 속에 숨겨져 있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_ **정자윤**

한 달여간 발렌타인 Stay True Bar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는 발렌타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위스키 멘토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발렌타인은 사전 예약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발렌타인의 예술적인 블렌딩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자신만의 진정성을 꾸준히 지켜간다면, 누구에게든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발렌타인 브랜드 앰버서더 김지수 대사는 발렌타인 〈STAY TRUE〉 캠페인의 의미를 서두에 언급한 뒤, 4가지 주요 테마를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것으로 클래스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20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발렌타인의 브랜드 유산과 역사적인 순간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차례로 소개하며, 지금까지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발렌타인의 매력을 전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작은 상점에서 시작된 발렌타인의 역사와 영국 왕실을 통해 로얄 워런트를 수여 받은 일화, 발렌타인 고유의 문장(Crest)에 대한 스토리는 좌중의 상당한 관심과 흥미를 일으켰다.

본격적인 테이스팅에 앞서서는 스코틀랜드의 4개 지역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하이랜드, 스페이사이드, 로우랜드, 아일레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몰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40여 개의 최상급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가 블렌딩되어 마침내 완성되는 발렌타인 위스키를 설명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지역적인 특색은 꼭 언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클래스 전반부에서 발렌타인의 역사와 배경지식을 습득하면서 발렌타인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후반부에는 발렌타인의 블렌딩의 미학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테이스팅 위주의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김지수 대사의 설명 아래 참가자들은 각각 뉴스피릿, 글렌버기 몰트, 그레인 위스키, 발렌타인 17 순으로 테이스팅에 임했고, 하나의 원액을 시음할 때마다 본인이 느낀 소감을 서로 주고받았다. 특히 완벽한 균형감을 자랑하는 '발렌타인 17'을 테이스팅한 후에는 터치 패드에 테이스팅 노트를 기록하며 맞춰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근접한 수치를 기록한 참가자에게 특별 선물이 증정되면서 클래스는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02

01

02

직접 보고 느끼는 유익한 배움의 시간
위스키 칵테일 클래스

>>
01. 바텐더 피터가 설명을 덧붙이며 칵테일을 시연하고 있다
02. 다양한 연산별 발렌타인을 베이스로 한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

이색적인 조합이 주는 신선함,

"피터 바텐더 님의 친절한 설명 아래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재료가 가미된 '발렌타인 마스터즈 허니 진생' 칵테일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클래스 종료 후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와 칵테일을 함께 맛보았는데, 그 둘의 조화도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_ **임주섭**

바텐더 피터가 진행했던 '위스키 칵테일 클래스'는 새롭게 선보인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눈앞에서 칵테일 제조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궁금한 점들을 그때그때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도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산 지역의 바텐더, 일반 고객,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회원 등 다양한 타깃 층이 클래스에 참가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의 감각적인 음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서로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일반 고객들을 위한 위스키 칵테일 클래스는 현장에서 발렌타인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체험이 주가 됐다. 참가자들은 피터 바텐더의 설명을 듣고 단계별 과정을 직접 따라해 보면서 '발렌타인 12 스파이스 줄렙'과 '발렌타인 17 후레쉬' 칵테일 레시피를 점차 완성해 갔다. 적극적으로 칵테일 제조에 참여한 이들은 내내 미소 지으며 즐거워했고, 직접 만든 칵테일을 시음해보면서 사진으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바텐더를 대상으로 한 클래스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 이를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에 반영된 전통적인 재료의 가니쉬, 이색적인 테크닉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인 만큼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메모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피터 바텐더는 5가지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을 직접 시연하면서, 해박한 지식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핵심 정보들을 함께 전했다. 클래스에 참가한 바텐더들은 그 자리에서 칵테일을 맛보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누렸다.

05

Ballantine's
& Women

The Way That Women Love Ballantine's

'아름답다'는 한마디보다 더 가슴 설레게 하는, '달콤하다'는 표현보다 더 부드럽고 감미로운,
이 한 잔의 위스키가 뭇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Delicate Scent of Women & Ballantine's

발렌타인, 여심을 녹여 감흥을 일으키다

발렌타인의 변신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2014년 여름 '발렌타인 Stay True Bar (이하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에서의 오감을 자극하는 풍부한 요소와 다채로운 콜라보레이션은 여성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감각적인 발렌타인만의 스타일링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강한 매력을 어필하며 뜻밖의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건 어쩌면 무척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발렌타인은 생각을 뒤엎는 반전 매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단번에 여심을 녹였다. 부담 없이 즐기는 다양한 발렌타인 칵테일, 입맛을 돋우는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 다양한 장르와 메시지를 녹여 낸 발렌타인 Stay True Party까지. 발렌타인 스테이 트루 바에서 선보인 색다른 요소들은 이곳을 찾은 여성들로 하여금 무한한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

발렌타인의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은 뜨거운 화두였다. 위스키를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은 감각적인 위스키 스타일을 제시하면서, 젊은 층의 여성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컬러도 재료도 제각각인 20여 종의 다채로운 칵테일은 선택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더불어 스타 셰프 김신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발렌타인 시그니처 메뉴'는 발렌타인과 곁들였을 때 최상의 조합을 이루면서 여성들의 미각을 만족시켰다. 또한 매주 이어지는 4번의 발렌타인 Stay True Party는 라인업이 공개되자마자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한여름 밤의 열기를 절정으로 치닫게 했다.

한편 위스키 전문가가 직접 안내하는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 '위스키 칵테일 클래스'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 클래스마다 성황을 이뤘다.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우먼을 비롯해 매거진 독자, 파워 블로거 등 위스키 클래스치고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누렸다. 특히 이번 클래스는 평소 위스키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워하는 여성들과 발렌타인을 보다 가깝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흥미로운 위스키의 세계로 안내했다.

01

02

>>
01. 여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여성 고객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
02. 많은 여성들이 위스키 테이스팅 클래스에 참가했다

Ballantine's Stay True Bar,
그 분위기에 취하다!

"여성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발렌타인
위스키 칵테일과 세련된 무드에 취한 밤!" _전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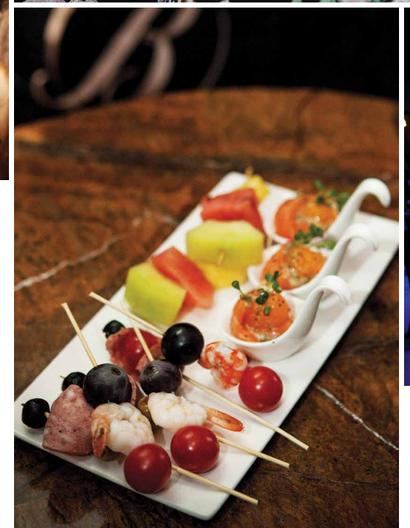
"발렌타인의 인기를 실감했던 하루!
왜 진작 즐기지 못했는지 후회돼요." _정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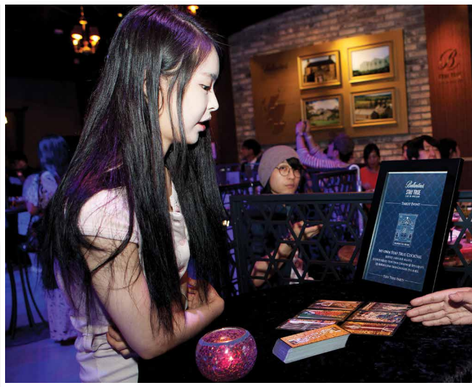
"머릿속에 그려왔던 발렌타인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젊고 세련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_황윤경

"잊지 못할 여름밤의 추억을 선물해 준
발렌타인 Stay True Bar!" _정유정

"각테일의 부드러운 목 넘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관객들과 호흡하는 환상적인 무대까지,
제 마음이 요동치네요." _이길원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공간에서
발렌타인과 더 가까워졌어요." _정소정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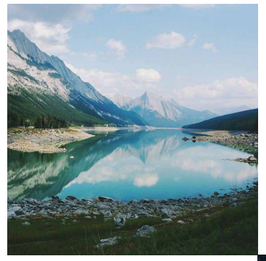
Ballantine's
Pick

재스퍼 다크 스카이 페스티벌

2014.10.17–10.26 / 캐나다 앨버타 / www.jasper.travel/dark-sky-festival-2014

Global Trend in Art & Culture

세계의 문화와 예술, 트렌드에 주목하는 당신을 위해,
발렌타인이 추천하는 국내 및 해외 축제 / 행사 소식을 한눈에 만나 보는 시간.



JASPER DARK SKY *Festival*

재스퍼 다크 스카이 페스티벌

2014.10.17–10.26 / 캐나다 앨버타 / www.jasper.travel/dark-sky-festival-2014

수천 개의 별빛이 쏟아지는 캔버스 같은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매년 10월, 캐나다 재스퍼 국립공원에서 열리는 재스퍼 다크 스카이 페스티벌에서는 상상에서만 가능할 것 같던 이 황홀한 풍경이 펼쳐진다. 재스퍼 국립공원은 세계 자연유산인 로키에 있는 대자연 공원으로, 캐나다 왕립천문협회가 세계 최적의 별자리 관측 장소로 공식 인정한 곳이다. 관광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콜롬비아 빙원을 비롯하여 폭포, 호수, 협곡, 온천 등 형언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공원 내 절경들 또한 시선을 사로잡는다.

로키의 여타 화려한 국립공원들과 달리 재스퍼의 분위기는 차분하고도 몽환적이다. 그런 재스퍼 공원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다크 스카이 페스티벌은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의 페스티벌은 역대 가장 성대하고 특별한 이벤트들이 열흘 내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캐나다 자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우주 정거장 사령관, 크리스 해드필드(Chris Hadfield)는 연설가로서 깜짝 등장하여 축제의 포문을 더욱 특별하게 열어 준다. 크리스 해드필드는 우주 정거장에서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지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SNS에 공유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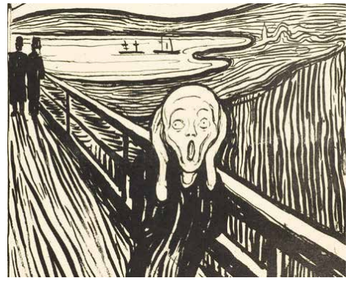
전문적인 도구나 과학적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별을 테마로 한 이벤트, 회담, 어드벤처 등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프로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참여하여 무한한 우주와도 같은 대자연의 경관을 함께 감상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 모두를 감동시켜 줄 축제로 거듭날 전망이다. 별 관찰 이외에도 천체 사진전, 어린이를 위한 바자회, 관측 이벤트 등이 자연으로부터의 감동을 더욱 풍부하게 펼쳐 보인다.

10 October

프랑크푸르트 북 페어

2014.10.08–10.12 / 독일 프랑크푸르트
www.buchmesse.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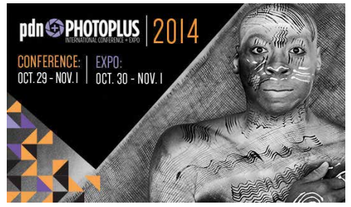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책 박람회인 프랑크푸르트 북 페어에서는 전 세계 출판문화인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도서저작권의 25% 가량을 거래한다. 1564년부터 인쇄업자들과 작가들이 '부흐메세(책 시장)'라는 박람회로 정기 개최하면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참가하여, 2005년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주빈국이 된 바 있다.



영혼의 시 : 뭉크展

2014.07.03–10.12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www.munchseoul.com

에드바르드 뭉크는 20세기로 향하는 과도기에서 유럽 모더니즘의 선구자적 인물이었다. 그는 기존의 회화적 관습과 단절함으로써 멜랑콜리, 사랑, 슬픔과 관련된 인간 본연의 감정을 그만의 예술성으로 밀도 있게 표현해 냈고, 회화뿐 아니라 연극과 영화 등의 독일 표현주의 예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번 전시는 크게 6개의 주제로 뭉크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를 조망한다.



뉴욕 국제 사진 박람회

2014.10.30–11.01 / 미국 뉴욕
www.photoplusexpo.com

타이완 그래픽 아트 박람회

2014.10.02–10.05 / 대만 타이베이
www.tigax.com.tw

함부르크 국제 보트 박람회

2014.10.25–11.02 / 독일 함부르크
hanseboot.de

댄스 엄브렐러 페스티벌

2014.10.14–10.31 / 영국 런던
www.danceumbrella.co.uk

11 November

오페라 〈아이다〉

2014.11.25–11.30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www.sac.or.kr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합동 공연이다. 236년 전통의 세계 오페라 1번지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을 대표하는 최고의 주역들이 방한하여 이탈리아 정통 오페라의 진수를 선사한다. 아이다와 라다메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웅장한 음악 선율에 담은 베르디의 대표작 〈아이다〉는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건설 기념으로 탄생한 4막 7장의 오페라다. 이탈리아 오페라와 라 스칼라 극장의 역사와 정통성을 대표하는 미술, 조각, 의상, 조명 등을 총망라하여 규모와 작품성을 모두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크푸르트 국제 광고 제작 기술 박람회

2014.11.05–11.07 / 독일 프랑크푸르트
www.viscom-messe.com

태국 국제 모터 엑스포

2014.11.29–12.10 / 태국 무앙 통 타니
www.motorexpo.co.th/2014

밀라노 모터사이클 박람회

2014.11.06–11.09 / 이탈리아 밀라노
www.eicma.it

뉴욕 호텔 및 레스토랑 박람회

2014.11.09–11.11 / 미국 뉴욕
www.ihmrs.com

12 December

뮤지컬 〈라디오시티 크리스마스 스펙타큘러〉

2014.11.07–12.31 / 미국 뉴욕
www.radiocitychristmas.com

전 세계 뮤지컬 중 가장 화려한 쇼를 자랑하는 라디오시티에서 올리는 크리스마스 스펙타큘러는 뉴욕의 전통 크리스마스 뮤지컬이자, 매년 연말 온 가족이 보고 싶어하는 공연이다. 배우들의 대형 군무,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화려한 장식과 특수 효과는 어른들에겐 환상의 나라에 온 듯한 설렘을 주고, 아이들에겐 1년 내내 기다린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는 듯한 벅찬 감동을 선사한다. 움직이는 대형 무대를 비롯해 첨단 조명과 음향 장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극장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연답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줄 것이다.

토론토 국제 건축 박람회

2014.12.03–12.05 / 캐나다 토론토
www.constructcanada.com

뉴욕 모터사이클 박람회

2014.12.12–12.14 / 미국 뉴욕
www.motorcycleshows.com

시그라프 아시아 2014

2014.12.04–12.06 / 중국 선진
sa2014.siggraph.org

두바이 국제 보석 박람회

2014.12.03–12.06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www.jewelleryshow.com

01 January

퀘벡 윈터 카니발

2015.01.30–02.15 / 캐나다 퀘벡
www.carnaval.qc.ca

1894년 캐나다 퀘벡 주민들이 겨울을 즐기기 위한 소규모 마을 축제로 시작하여, 1955년부터 겨울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윈터 카니발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매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열리며, 매년 주제를 정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보통 17일 동안 계속되며, 주요 행사로 스노우 래프팅, 개썰매 경주, 눈 마차, 스노우 베스 등이 열린다.

북아메리카 국제 오토쇼

2015.01.12–01.25 / 미국 디트로이트
www.naias.com

매년 1월에 개최되는 그 해의 첫 오토쇼로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 모터쇼와 함께 세계 4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다. 디트로이트 모터쇼로도 알려져 있으며, 1957년부터 재규어, 벤츠, 포르쉐 등 해외 업체들이 참가하면서 국제 모터쇼로 격상됐다. 자동차의 트렌드를 읽는 중요한 지표이자 새롭게 출시된 신차의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영국 인테리어 박람회

2015.01.19–01.22 / 영국 버밍험
www.interiorsuk.com

뉴욕 동계 패션 박람회

2015.01.04–01.06 / 미국 뉴욕
www.fameshows.com

라스베가스 건축 박람회

2015.01.20–01.22 / 미국 라스베가스
www.buildersshow.com

두바이 광고 그래픽 이미지 박람회

2015.01.11–01.13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www.signmiddleeast.com

EPGA / PGA Tour Schedule

미리 체크해야 할 EPGA / PGA 투어 일정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숨막히는 결전, 발렌타인이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EPGA / PGA 투어 일정을 소개한다.

EPGA

유럽을 대표하는 남자 프로 골프 투어 기관인 유러피언 투어는 1984년 독립하여 주로 유럽에서 대회가 열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시아, 중동 등 비유럽권에서 개최되는 비중이 높아졌다. www.europeantour.com

PGA

미국과 북미를 대표하는 남자 프로 골프 투어 기관인 PGA 투어는 매년 1월 초부터 경기를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진행되며, 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후원으로 해마다 수많은 공식 대회를 치르고 있다. www.pgatour.com

10 OCTOBER

볼보 월드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EPGA

Volvo World Match Play Championship

2014.10.15 – 10.19 / The London Golf Club / 잉글랜드 켄트 애쉬

볼보사는 유러피언 투어의 메이저 스폰서로서 1988년 골프대회 후원을 진행한 이래 현재까지 해마다 4개의 세계적인 골프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 역시 국내 골프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활발한 골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포르투갈 마스터스 EPGA

Portugal Masters

2014.10.09 – 10.12
Oceânico Victoria GC / 포르투갈 빌라모우라

맥글래드리 클래식 PGA

The McGladrey Classic

2014.10.20 – 10.26
Sea Island Resort / 미국 조지아 세인트 사이먼스 아일랜드

퍼스 인터내셔널 EPGA

Perth International

2014.10.23 – 10.26
Lake Karrinyup CC / 호주 퍼스

11 NOVEMBER

월드 골프 챔피언십 – HSBC 챔피언스 EPGA PGA

World Golf Championships - HSBC Champions

2014.11.03 – 11.09 / Sheshan International GC / 중국 상해

HSBC 월드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HSBC 위민스 월드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2008년부터 개최된 HSBC 위민스 챔피언스와 더불어 골프 관련 스폰서십에 적극적인 HSBC 은행에서 개최하는 대회 중의 하나다. 특히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금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BMW 마스터스 EPGA

BMW Masters

2014.10.30 – 11.02
Lake Malaren GC / 중국 상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PGA

Sanderson Farms Championship

2014.11.03 – 11.09
Country Club of Jackson / 미국 미시시피 잭슨

OHL 클래식 앳 마야코바 PGA

OHL Classic at Mayakoba

2014.11.10 – 11.16
El Camaleon GC / 멕시코 플라야 델 카르멘

※ EPGA / PGA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공 받은 정보입니다. ※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01 JANUARY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PGA

Hyundai Tournament of Champions

2015.01.05 – 01.12 / Kapalua Resort / 미국 하와이 카팔루아

현대자동차가 개최하는 PGA 투어의 시즌 개막전으로, 전년도에 열린 대회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에게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수준 높은 대회다. 월드 클래스 선수와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신예 선수들이 예측할 수 없는 승부를 펼친다.

소니 오픈 인 하와이 PGA

Sony Open in Hawaii

2015.01.12 – 01.18
Waialae Country Club /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휴마나 챌린지 인 파트너십 위드 클린턴 파운데이션 PGA

Humana Challenge in partnership with the Clinton Foundation

2015.01.19 – 01.25
La Quinta CC / 미국 캘리포니아 라 퀸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 PGA

Waste Management Phoenix Open

2015.01.26 – 02.01
TPC Scottsdale / 미국 애리조나 스코츠데일

02 FEBRUARY

AT&T 페블 비치 내셔널 프로암 PGA

AT&T Pebble Beach National Pro-Am

2015.02.09 – 02.15 / Monterey Peninsula CC / 미국 캘리포니아 페블 비치

대회명처럼 프로와 아마추어가 팀을 이뤄 경쟁하는 대회로, 미국의 유명 가수 빙 크로스비가 제안한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됐다. 핸디캡이 낮은 아마추어 골퍼들과 50–60인의 프로 선수가 함께 라운딩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PGA

Farmers Insurance Open

2015.02.02 – 02.08
Torrey Pines GC /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노던 트러스트 오픈 P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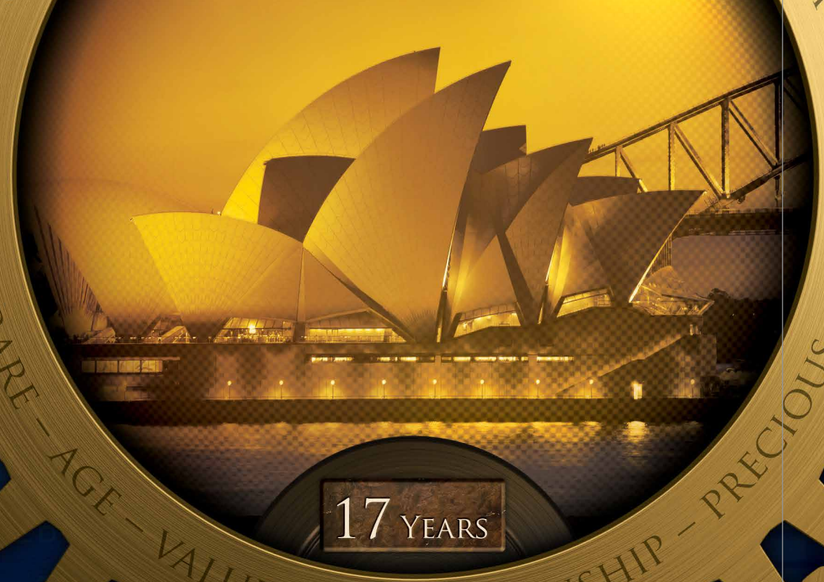
Northern Trust Open

2015.02.16 – 02.22
Riviera Country Club / 미국 캘리포니아 퍼시픽 팰리세이드

혼다 클래식 PGA

The Honda Classic

2015.02.23 – 03.01
PGA National /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가든스



GREAT THINGS TAKE TIME

시간의 위대함, 그리고 위스키

12년, 17년, 21년…. 스카치 위스키 병에 적힌 오랜 연도 수에는 수많은 역사와 뜻이 들어있다. 스코틀랜드 최상의 자연 조건과 천연 재료들, 위스키 장인의 정성, 세대를 걸쳐 이어내려온 집약된 기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병의 위스키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스키 연산, “숫자”가 말하는 역사 그 이상의 가치

스카치 위스키는 병 안에 든 위스키 원액 중 가장 숙성 연도가 짧은 위스키의 연산을 라벨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17년산 스카치 위스키라면 오크통에서 최소 17년 이상 숙성된 위스키들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로얄 살루트와 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브랜드의 장인인 마스터 블렌더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복합적이고 리치한 위스키 원액을 새로 만든 위스키 원액과 블렌딩 하여 밸런스를 정교하게 맞추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연산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품에 포함된 스카치 위스키가 단 3년만 숙성된 위스키라는 의미이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그 빛나는 헤리티지를 이어가다

‘엔젤스 셰어’라는 말은 위스키가 오크통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해마다 2%의 원액이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바로 천사가 마시는 몫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때문에 오래 숙성된 위스키일수록 그 양은 점점 줄어 들고, 가치는 더욱 귀해진다. 30년 된 위스키라면, 내용물의 60%는 천사가 마신 셈이며 이 말인즉, 우리가 발렌타인 30년 한 병을 마실 때 우리가 마시는 양보다 천사가 마신 위스키의 양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1]‘시바스 브라더스’사의 장인들은 선조들이 이룩한 통찰력과 헌신의 결과물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 ‘시바스 브라더스’는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 중 스트라스 아일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증류소에서 처음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엄 위스키 제조지의 심장부에 위치한 증류소는 하이랜드의 산등성이가 이어지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100여 년을 이어져 내려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두 명의 마스터 블렌더들과 뛰어난 예술성과 재능을 지닌 양조자들이 지금도 이 곳에서 훌륭한 위스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날 ‘시바스 브라더스’사의 오크통에서 보관되고 있는 위스키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완벽한 위스키가 선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위스키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시바스 브라더스의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다.

1)시바스 브라더스 : 세계적인 주류기업인 페르노리카에 속한 그룹사로서 글로벌 리딩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인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살루트, 더 글렌리벳 및 프리미엄 진 비피터를 소유하고 있다.

THE AGE MATTERS

연산, 시간의 흐름을 통해 완성되는 소중한 결과물

향후 스카치 위스키를 마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라벨에 써있는 연산을 체크하고, 그 숫자를 통해 당신이 마시는 위스키가 얼마나 길고 복잡한 여정을 통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곱씹어 보길 권한다. 당신이 마시는 한 모금 한 모금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vs 발렌타인 *17 Year Old*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20세기 대표 건축물’, ‘현대건축의 걸작’이란 찬사와 함께 1973년에 완공되었다. 흰 조개 껍질을 닮은 독특한 외관의 오페라 하우스 지붕은 당시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든 구조였지만 뛰어난 창의력과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시켜 수 차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될 수 있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디자인, 첨단기술을 이용한 구조 설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예술적인 건축물로 손꼽힌다. 발렌타인 17년 한 병에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이고 완벽한 균형감을 이룬 맛을 창조해내는데 17년이 걸리며 이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걸린 시간과 동일하다.

GUARANTEED AGE WHISKY

Pernod Ricard Korea Drink Responsibly 지나친 음주는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17년 후에도, 새로운 스타일의
골프 코스를 디자인하기 위해
변함없이 모험을 선택할 것이다”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Enjoy Ballantine’s responsibly

BALLANTINE'S DIGITAL MAGAZINE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더 풍부해진 컨텐츠로 발렌타인 매거진을 즐기다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

발렌타인 매거진은 지난 2013년 11월 고객들의 스마트해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 구독할 수 있는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을 런칭했다. 2011년부터 발행된 '발렌타인 매거진'은 발렌타인의 신제품 런칭, 발렌타인 챔피언십, 테이스팅 클래스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소식은 물론, 발렌타인의 역사와 브랜드 헤리티지까지 두루 아우르며 발렌타인만의 특별한 서사를 전해 오고 있는 매거진이다.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은 애플 앱스토어 '뉴스 가판대'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퍼블리싱 서비스 분야 1위 어플 '탭진(Tapzin)'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기존 매거진에서 소개되었던 컨텐츠 중 한정된 지면의 한계로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없었던 컨텐츠를 태블릿 PC와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면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발렌타인 매거진을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예정이다. 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매거진을 읽다가 생생한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 지면에 다 싣지 못했던 현장 사진들을 손으로 넘겨 가며 감상할 수도 있다.

한편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을 통해 온라인 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만나 볼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로드 투 스코티시 오픈 프로모션'을 기념하는 온라인 이벤트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추첨을 통해 발렌타인 17을 증정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다. 또한 올여름 해운대를 뜨겁게 달궜던 '발렌타인 Stay True Bar' 오픈에 앞서서도 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는 계속됐다. 온라인 상에서 발렌타인 매거진을 다운로드한 후 탭진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글을 링크하는 이벤트로, 더 많은 지인들과 공유할수록 이벤트 당첨 확률은 높아졌다. 상품으로는 '발렌타인 Stay True Bar'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됐으며, 1등에게는 32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 보틀 교환권, 2등은 발렌타인 VIP 바우처, 3등은 시그니처 데이 메뉴 식사권이 각각 제공됐다. 이처럼 독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은 현재 4호부터 9호까지 정식으로 구독할 수 있다.

> 발렌타인 디지털 매거진 이용 방법

방법 1 |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나 **애플 앱스토어**(애플 기기 이용자)에 접속한 후, **영문으로 'Ballantine's magazine' 또는 한글로 '발렌타인 매거진'을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방법 2 | **'탭진(Tapzin)' 어플을 설치**한 후, **'발렌타인 매거진'을 검색**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탭진의 **시사/경제/재테크 또는 패션/스타일 또는 스포츠 카테고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추천 카테고리에서도 발렌타인 매거진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 중 이미지상에 있는 **재생 버튼**(▶)을 터치하면 그에 해당하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고, **프레임 버튼**(⧉)을 터치하면 더 많은 사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렌타인 매거진을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BALLANTINE'S MEMBERSHIP CLUB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이드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발렌타인을 사랑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다양한 네트워킹의 장으로써
풍성하고 차별화된 혜택으로 품격이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혜택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은 골프에서 응용한 독특한 마일리지 제도를 선보입니다.
회원 분들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 샷(Shot)이 주어지며,
샷 적립에 의한 등급에 따라 발렌타인만의 독특한 혜택을 드립니다.

01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및 다양한 행사 초대

A.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 초대
위스키 전문가를 통해 발렌타인 브랜드 스토리부터 위스키 전반에 대한 정보 및 테이스팅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클래스에 참가하신 분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킹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B. 발렌타인 관련 행사 주최
발렌타인과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골프와의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참여 이벤트, 아마추어 골프 대회 초청 등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발렌타인 신제품 출시 행사 및 다양한 럭셔리 파티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02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내 다양한 이벤트 참여

멤버십 클럽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월별/분기별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프리미엄 혜택을 드립니다.

03 발렌타인 제휴 바 예약 서비스 제공

제휴 바의 보다 편안한 이용을 위해 예약(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휴 바 페이지의 '예약하기' 버튼을 통해 실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04 골프 용품 경매 이벤트 진행

경매 이벤트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직접 사인한 골프 용품 등을 직접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05 회원 가입 시 멤버십 클럽 카드 발급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에 가입하시는 회원 분들께 제휴 바 등에서 회원 인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회원 번호가 담긴 발렌타인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가입 안내

발렌타인이 발급한 인증번호를 아래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에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발렌타인 멤버십 클럽 사이트 _www.ballantinesmc.com
문의 _발렌타인 마케팅팀 02-3466-5700

www.ballantinesmc.com

BALLANTINE'S NEWS
발렌타인이 전하는 새로운 이벤트 & 뉴스

01

'제57회 코오롱 한국오픈' 공식 후원 및 이벤트 진행

발렌타인이 오는 10월 23일부터 나흘간 천안 우정힐스 C.C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코오롱 한국오픈'을 공식 후원하며, 대회 기간 동안 발렌타인 바 및 VIP 라운지를 운영하는 등 갤러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불어 클럽하우스 내에서는 발렌타인 멘토링 클래스를 마련하여 발렌타인을 보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테이스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14년 10월 23일 ~ 10월 26일

02

전국의 주요 호텔 바 '스페셜 프로모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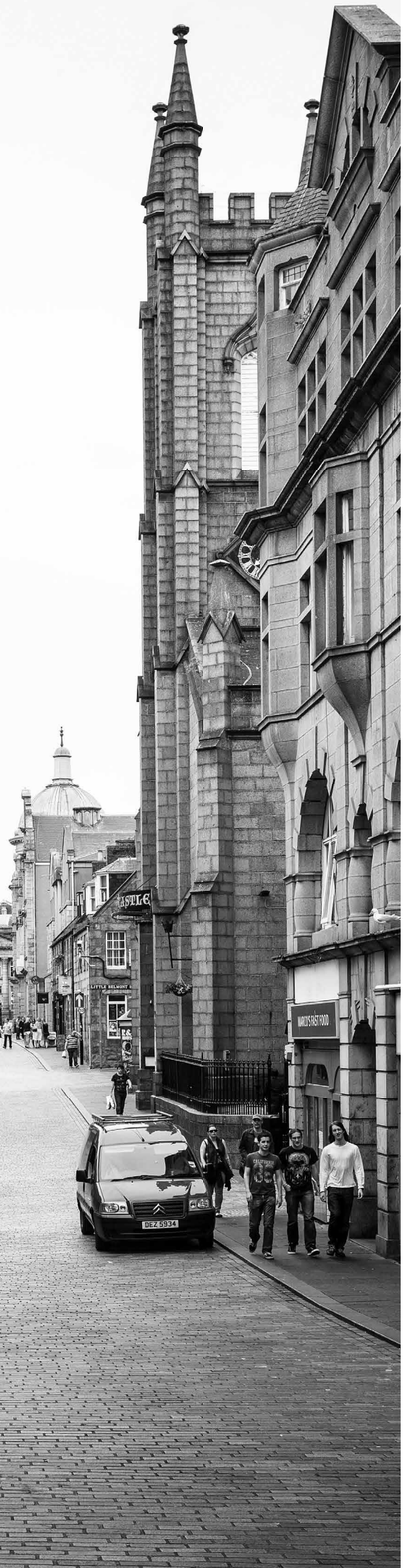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긴 여운의 발렌타인을 음미하면서 실용적인 기프트까지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스페셜 프로모션이 시작된다. 약 두 달간의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전국의 주요 호텔 바에서 발렌타인 17 또는 21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프트를 증정한다. 발렌타인 17을 주문한 고객에게는 볼륨 컬러볼 세트 또는 고급 골프 파우치, 발렌타인 21 주문 시에는 랩 시리즈 워터 로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2014년 11월 1일 ~ 12월 31일

03

'2014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리저브' 출시

크리스마스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은 '2014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리저브'가 국내에서 첫 출시된다. 따스한 겨울 느낌의 보틀과 패키지가 인상적인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리저브는 과일 향과 캐러멜 향이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면서 깊은 풍미를 선사한다. 이 특별한 에디션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의 주요 백화점 및 발렌타인 판매처에서 한정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2014년 11월 1일 ~

* 위 이벤트 내용은 브랜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발렌타인 마케팅팀 02-3466-5700



Ballantine's®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9th. vol. Ballantine's Magazine

매거진 발렌타인은 품격 높은 테이스트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프리미엄 블렌딩 오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입니다. 발렌타인만의 고유한 헤리티지 및 브랜드 뉴스와 함께 하이클래스를 위한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양질의 컨텐츠만을 전달합니다.

제호
Ballantine's

발행일
October 22, 2014

발행처
페르노리카 코리아 발렌타인 마케팅팀

주소
137-8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8-3 나라빌딩 21층
www.pernod-ricard-korea.com
www.ballantinesmc.com

Planning & Design
㈜헤즈
www.heaz.co.kr

Edit
㈜헤즈

Photographer
송상섭

〈발렌타인 매거진〉에 실린 글, 그림, 사진은 발행사인 페르노리카 코리아에 저작권이 있으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렌타인 매거진〉 구독 문의 및 안내 02-3466-5700

ELEMENTAL CHLORINE FREE GUARANTEED